

“자취생 월 고정지출비 130만원 이상… 청년도약 엄두 못내”

금융권, 청년도약계좌 내달 출시
尹 대통령 대선 공약·국정과제
매월 40만원~70만원, 5년 만기

5년간 5000만원 목돈 만들지만
정작 2030 대상자들은 ‘부담’

금융위 “가입자, 긴급자금 필요때
계좌 유지, 수요 해결방안 찾는 중”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5년간 5000만원을 만들어 준다는 정부의 의도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긴 시간과 월 납입액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만4000원
3600만원	70만원	50만원	4.6%	2만3000원
4800만원	70만원	60만원	3.7%	2만2000원
6000만원	70만원	70만원	3.0%	2만1000원
7500만원	70만원	70만원	3.0%	2만1000원

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두고 대상자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중인 직장인 A씨는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밥값, 교통비, 핸드폰요금, 주택청약, 적금이 나가면 청년도약계좌에 넣을 돈이 없다”며 “70만원이라는 돈이 청년들에게는 큰 액수로, 최소 금액인 40만원 저축하려고 금리가 낮은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중인 직장인 B씨도 “자취생들은 월세를 포함한 한 달 고정비용만 130만원이 넘게 나가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

고 중도 해지 할 경우 시중은행과 비슷한 이자액을 받게 되는데 정책상품이라는 이점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산형성 기회를 준다고 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상품이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

실제 문재인정부 당시 정책상품이던 청년희망적금 역시 중도 해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어 들었다. 10개월 사이 45만4000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해지한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의 예치기간은 2년, 월 납입액은 50만원으로 윤 대통령의 청년도약계좌보다 예치기간과 납입액이 적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보다 부담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의 반응이 미지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정부기여금으로 편성된 재원만 3678억원으로, 정책 첫 해 유의미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방안 등을 찾아보고 있다”며 “계좌유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중국의 작년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인도에 추월당했다. /AP·뉴스시

인구 1위 추월… ‘인구 보너스’ 시대 막 내리나

● 차이나 뉴스&리포트

40년간 경제성장 가장 큰 기반 ‘인구’
인건비 상승, 美中갈등 등 악재 겹쳐
‘세계의 공장’ 타이틀까지 ‘위태’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고민에 빠졌다. 작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니 지난달 말에는 인도에 인구 대국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 경제성장의 호황을 가져다 준 가장 큰 기반은 인구였다. 이미 많이 오른 인건비에 팬데믹, 미국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세계의 공장’이란 타이틀도 인도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유엔 경제사회화(DES)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도 인구가 14억2577만 5850명이 되면서 중국 본토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유엔인구 기금(UNFPA)은 올해 중반에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가 앞당겨졌다.

1949년 중국의 인구는 5억4200만명으로 인도보다 50% 이상 더 많았다. 인구 역전의 원인은 이후 이어진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이다.

인구가 곧 국력이라고 강조한 마오쩌둥 시대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1976년 10억명에 달했지만 다음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 다며 1980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35년 동안 엄격하게 시행된 한 자녀 정책으로 출생아수 감소 효과는 약 4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중국의 인구는 작년 14억1180만명으로 집계돼 6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매년 100만명 이상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은 지난 2016년 폐지됐지만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작년 여성 1인당 1.2명까지 떨어졌다.

반면 인도 인구는 2064년까지 40여년 동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엔 관계자는 “중국 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었고 급세가 말 이전에 10억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인도 인구는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값싼 노동력과 소비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인구 보너스’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중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0년 전 3483위안에서 2021년 8903위안(미화 1287달러)으로 올랐다. 2021년 기준 인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만7017 루피(미화 208달러)에 불과하다. 평균 연령 역시 중국이 38.4세로 인도보다 열살이나 많다.

중국 당국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라며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김건희 여사 패션 화제… 의류中企 ‘웃음꽃’

과감하고 화려한 색상 매치
브랜드 가리지 않는 착장에
‘따라하고 싶은 패션’ 떠올라

패션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등장
수제화 매장엔 방문자 10배 늘어

김건희 여사의 패션에 패션업계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역대 영부인들과 비교될 만큼 광복 행보를 이어가는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은 대통령실 사진 뉴스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다. 방문처에서 한 말과 만난 사람은 물론, 입고 든 패션까지 완판 행렬을 이어가자 특히 국내 중소 패션기업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8일 〈메트로 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패션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 중소 패션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부터 사회적 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선택하면서 김 여사의 선택이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김 여사는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다양한 논란 만큼 화제가 되는 것은 김 여사의 패션이다. 과감하고 화려한 색상 매치와 브랜드를 가리지 않는 착장으로 특히 40~50대 여성들에게 ‘따라하고 싶은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환경과 서민친화적인 국내 중소기업들이 내놓은 다양한 패션들은 명품과 달리 가격대가 낮아 더더욱 품절 대란을 쉽게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김 여사의 패션을 매번 브랜드와 가격대까지 찾아 소개하는 패션 인플루언서까지 등장했다. 네이버의 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김여사에 대해 14개에 달하는 단독 포스팅을 쓰며 김여사의 의류 패션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출중한 외모와 패션 센스때문인지, 매번 김건희 여사가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시

입었다하면 가방, 옷, 신발, 운동화 할 것 없이 빠르게 품절되는 사태를 보여 주고 있다”며 “웃 매치 센스가 좋다”고 평가했다.

성수동 수제화 브랜드 앤서니는 지난 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신은 신발의 브랜드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동안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주문이 폭주했다. 지금도 당시 김 여사가 신은 것으로 밝혀진 두 켤레의 구두 주문이 폭주하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앤서니 관계자는 “우리가 부탁 드린 것도 아니고, 지난해 몇 켤레 구입해 신은 후 이번엔 연결없이 방문해, 크기가 맞는 것을 추가로 구매해 가셨다”며 “구매 사실이 알려진 당일부터 2~3일 간 10배 이상 방문자 수가 늘었다. 매장 방문이나 주문 수 역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성수동 수제화 브랜드 B는 “성수동에서 신발을 샀다는 사실에 우리도 방문객이 늘었다. 해당 기업만큼은 아니어도 득을 봤다”며 “이렇게 관심이 이어지니 감사할 뿐이다. 우리 매장

의 제품도 신었으면 하는 맘이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적인 자리에 대통령과 함께 하고, 독자적인 활동도 이어가는 영부인의 패션은 국내외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일으킨다.

데이비드 여백 뉴욕대 교수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미셸 오바마가 입은 옷으로 패션·유통업체의 시가 총액이 27억 달러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관계 없이 영부인의 착장만으로 일어난 주가의 등락을 ‘미셸 오바마 효과’라고 명명했다. 미셸 오바마가 선택한 의류 브랜드는 평균 2.3% 주가가 올랐다. 이는 재키 케네디 등 여타 영부인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 여사의 착장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 만큼 최고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현안과는 별개로 세련된 패션이 각광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의 러브콜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경제6단체장들이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뉴시스

소·부·장 등 경제협력 공감대 형성… “원활한 거래 중요”

〈소재·부품·장비〉

기시다 총리, 경제 6단체장 회동
주일대사관 주최 티타임 형태 진행
최태원 “각자 위치에서 협력 모색”
구자열 “양국 공동이익 추구해야”

일본 총리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8일 서울에서 경제 6단체장들을 한꺼번에 만나며 한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양국이 갈등을 빚어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다양한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 만남은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티타임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김병준대행은 회동 장소로 들어서며 “의제는 우리가 제기하기보다는 기시다 총리가 여러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도 나름대로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한 더 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경단련(케이단련)과 합의한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과 관련, “일본 쪽에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우리 쪽으로 제안해온 상태”라며 “공동운영 위원장은 제가 되고, 운영위원 두 분을 모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제가 일본에 가서 계속 상의할 것”이라며 “(운영위 구성은) 재계 인사들로 하려 하는데 일본 쪽

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양국이 협력해 희귀 광물 자원이나 에너지 분야 이런 데서 협력을 강화해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손경식 회장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계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두 나라 기업들의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12년 만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서틀외교가 복원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환영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 공급망 즉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높은 관심에 크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민간 교류의 대표적인 행

사인 ‘한일축제한마당’의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한일 간 최대 민간 교류 행사로 매년 9월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의 한국 측 실행위원장으로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양국 국민, 특히 청소년 세대가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다”면서 “인적 교류 확대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협력에 대해 서로 각자 역할을 다하자고 말을 나눴다”며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관련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말에는 간사이 경제연합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며, 다음 달 9일에는 6년 만에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를 부산에서 재개할 예정이다.

구자열 회장은 “경제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양국은 해외 자원 공동 개발 및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추구해

야 한다”며 “수소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이나 생산·공급 협력 또는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 4일간 정·재계 인사를 면담하고 세미나와 전시상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일본과의 원활한 거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일본 중소기업과 원만한 거래가 이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그런 쪽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권유하려 한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원천기술은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거기서 부품소재를 가져다가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수출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일의원연맹, 기시다 총리 면담

“관계 정상화 결단” vs “문제해결 노력해야”

〈興〉

〈野〉

興, 부산엑스포·G8 지원 부탁

野, 오염수 방류문제 등 아쉬움 표해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부각하는 한편, 일본에 부산세계 엑스포 유치 및 G8 참여 지원을 부탁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 문제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해 거론한 뒤 아쉬움을 표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은 방한이틀째인 기시다 총리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에서 이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뤘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이 끝난 뒤 정진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서틀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고,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오른쪽) 의원,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제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한국인 건강·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정상회담에서의 표현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

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의원은 “6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외무대신이었던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 간 서틀외교 복원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화에도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모습을 상기시켰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일본 측이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안보 협력을 위해 안보 문서 재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野 “과거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 1면 ‘반도체 공급망 구축…’서 계속

기시다 총리는 회견 후 ‘어려운 환경 아래 있던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제 자신의 개인적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감 표명은 유지하되, 사건임을 전제로 함으로써 의미를 축소한 것 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일본 측 배상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라며 “오히려 한술 더 떠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 다시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시

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서틀회복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뺨서틀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할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나 회담 전 한국과 일본의 참모진들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다”며 “저희들 생각에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올 때 나름대로 생각한 본인의 인식, 발언을 직전에 준비했다가 자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히로시마 G7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함께 방문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추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앞으로도 말과 행동으로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첨단혁신·국제자유·성장거점 기반… ‘글로벌 허브’ 도약”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민선8기 시정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입니다. 이는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문하신 인천시민과 약속입니다. 인천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살려 인천 가치를 재창조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씩씩,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APEC 정상회의 유치, 재외동포청 유치, 지역 대기업 및 대학들과의 소통행보 등을 이어가고 있는 유정복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천미래 비전’과 ‘시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과의 일문 일답 주요 내용이다.

–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라는 글로벌 도시를 시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재창조하는 제물포 르네상스와 인천의 미래를 여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대한민국 근대화 현장이었던 인천 내항을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내항 주변 중·동구 일원을 사람과 지식, 재화가 모이는 도심으로 다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내항 재개발과 주변 원도심 재생사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은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것입니다. 첨단혁신도시, 국제자유도시, 성장거점도시를 3대 목표로 글로벌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도시공간 창출, 글로벌 추진 기반 구축을 3대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전략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미래 인천의 변화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천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행정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40년간 인천시 인구는 108만명에서 295만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으며, 그동안 중구 내륙 원도심과 동구의 인구는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여기에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제공과 새로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개편해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동력으로 삼고, 내항과 함께 근현대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현재도 60만명에 이릅니다. 인구 규모에 맞는 적합한 행정체제 기반 마련과 미래행정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구 분구와 검단구 신설로 행정서비스 질 개선뿐만 아니라 청라



유정복 인천시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의 기자

국제도시, 루원시티, 북부권종합발전계획, 검단신도시 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항 재개발·주변 원도심 재생사업 투트랙으로 프로젝트 추진 할 계획 3대목표 전략 과제별 추진방안 마련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에서 인천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전략이 있는지요?

“인천시는바이오·반도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미래차,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민선8기 경제규모 100조시대 달성을 위해 제2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을 신설했습니다.”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리딩하는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먼저, 국내 유일 뿌리기술연구소를 통한 뿌리산업 육성, 6G 통신과 연계한 세계 최초 PAV실증도시 구축,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 구축 및 산업단지 가치재창조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 대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반도체 패키징 2,3위 기업 및 글로벌 반도체장비기업 등 1,300개 기업이 포진한 인천시에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반도체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넘어 반도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 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인천지역 대기업, 대학들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통은 어떤 의미인지요?

“민선8기는균형, 창조, 소통을시정운영 핵심가치로 세우고 진심과 배려로 시정을 펼치기 위해 다수민원 소통의 날과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인천소통시민패널을 모집하는 등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열린 시장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10만명 이상 시민이 방문했고, 이중 총 1,300여명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3,000명 이상 다수 시민 공감받은 시민제안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시민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열린 시장실 운영 시민과 소통 생활안전 수준 개선위한 대책 수립 추진 안전시설물 확충·분야별 안전수준 향상

“대기업과 간담회, 인천지역 대학과 간담회는 사실 서로 연결되는 주제를 공유하면서 지역 대학과 기업 간 더욱 긴밀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대학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인천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각종 통계를 보면 인천이 다른 도시보다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

◆ 유정복 인천시장 프로필

- 학력
 -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 연세대학교 정치학 학사
- 경력
 - ▶ 2022.7~제8대 인천광역시 시장
 - ▶ 2015.10~2016.9 제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 2014.7~2018.6 제6대 인천광역시 시장
 - ▶ 2013.3~2014.3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 ▶ 2013.3~2013.3 제4대 행정안전부 장관
 - ▶ 17, 18, 19대 국회의원 (3선)

는지요?

“지나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묻는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인천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안전관련 통계를 보면 인천은 우려만큼 위험한 도시가 아닙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인구 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주요범죄 검거율 등 인천시 치안지표는 다른 특·광역시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인천시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분야 2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와 자살 분야는 2021년 4등급에서 2022년 2등급으로, 범죄분야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돼 인천시 분야별 안전수준이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천경찰청, 군·구 합동으로 지역 안전지수 향상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안전지수 상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 옥외 행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생활 속 안전 점검 강화,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시민참여 화재 안전 교육 확대 등 분야별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2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3일 시청 두루미 어린이집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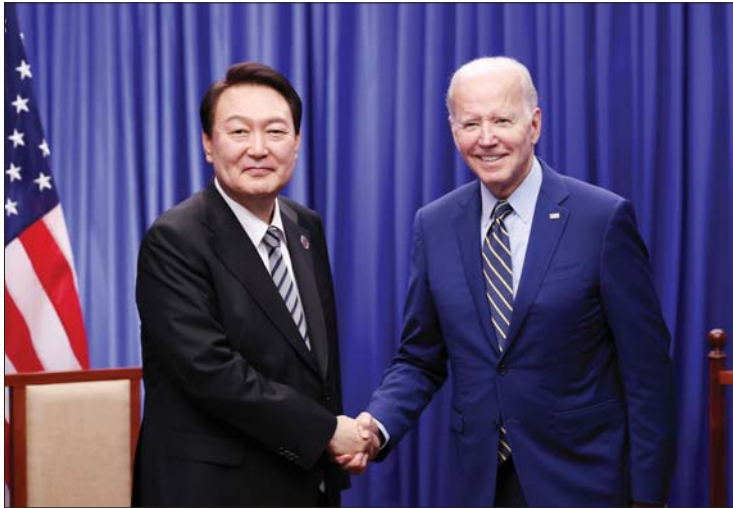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썸농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에서 일일 장터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서 열린 개방행사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정식 “노동개혁 기틀 마련… 근로제 개편, 사회적 대화”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채용질서 공정성 제고 평가
“하반기 노조법 개정 등 추진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지난 1년은 부족하지만 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 노동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1순위에 뒀으나, 노정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사법치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다만 “노동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서 다수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거운 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법치의 기초 위에서 상생 연대를 꽃 피우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압박

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회계 투명성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달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50여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현장 조사를 강행하며 노동계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수렴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혁의 동력은 내용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을 걸리더라도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 토론회에도 우리가 참석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동계가 불참한 상황이었다. 남은 기간에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칙으로 제시한 ‘노사법치’가 노조만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고, 법을 통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세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 등 채용질서도 공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우선 채용이나 특별채용 단협조항은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불공정 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공정채용법도 조기에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조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황근 “쌀·농축산물 수급 안정…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화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성과에 식량자급률 개선 꼽아
“민관 협력 통해 가루쌀 산업화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업이 생산중심의 답습적 모습에서 벗어나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 쌀 수급균형·식량자급률 제고 “두 마리 토끼 잡아”

정 장관은 우선 지난 1년의 성과로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꼽았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농정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 해소를 위해 기존의 임기응변적 대책에서 벗어나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해 전년 수확기부터 하락하던 쌀값을 16.7% 반등시켰다.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 한시적 사업이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

화했다.

K-푸드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K-푸드플러스 수출 산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지난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8억달러(농식품 88억달러, 전후방산업 30억달러)를 달성했다. 또 미래성장산업화 동력확보를 위해 10년 만에 식량안보와 농식품혁신을 두 축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청년농·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의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우유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 장관은 “취임하기 전부터 농성하는 여의도 현장도 방문하고 정말 끈질기게 협의해서 결국 관철시켰다”며 “그랬더니 벌써 아이스크림과 연유 등

국산 가공유가 50% 이상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 농가 경영안전망 기반 … “식량주권 100년 대계 세울 것”

정 장관은 향후 농가 경영안전망 기반을 농업인과 함께 식량주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농업인과 약속한 바와 같이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만6000헥타르(ha) 감축 등 적정 생산 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가루쌀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원지 | 빠니보틀 | 각류브

진정한 마라맛을 찾아서

마라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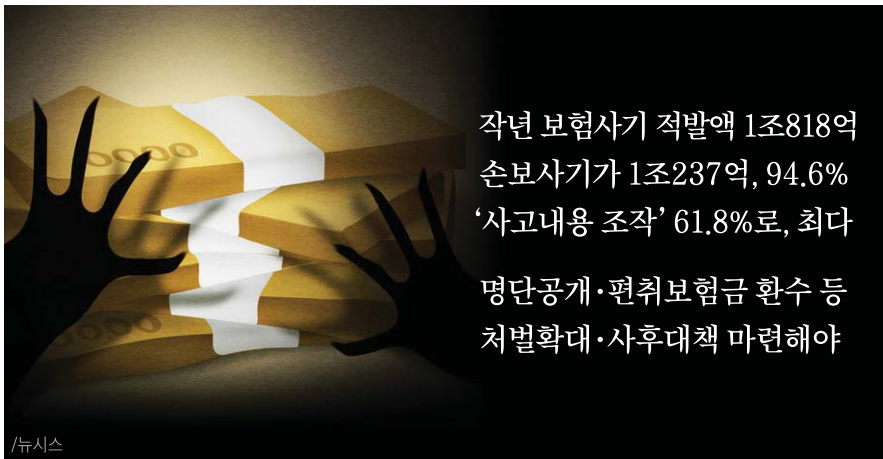


진화하는 보험사기, 처벌법은 제자리… “실효성 방안 마련을”

지난해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1년 새 138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고, 생명보험업계는 2021년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사기에는 주로 손해보험 상품이 많았다. 전체 적발 금액 중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 적발 금액은 1조237억원 규모다. 전체 금액의 94.6%를 차지했다.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581억원으로 전체의 5.4% 수준이다.

문제는 보험사기를 통해 수령하는 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높은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도화되고 있는 것.

지난해 생명보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6301명으로 2021년(7812명) 대비 줄었다. 적발인원은 19.3% 줄었지만 액수

는 4.7% 증가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지난해 9만6378명으로 2021년(8만9817명) 대비 7.3% 증가했다. 보험사기 액수도 15.2%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은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등 ‘사고 내용 조작’이 가장 많이 활용됐다. 전체 유형 중 61.8%를 차지했다. 이어 질병, 상해 사고 위장 등을 통한 ‘허위사고’가

17.7%로 뒤를 이었다. 고의 총돌, 자기 재산손괴 등 ‘고의사고’가 14.4%로 집계됐다.

정부와 보험사는 해마다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보험사기 신고 접수 및 적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매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기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매년 업계별로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돼 손해율이 상승하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 처벌 범위 확대와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보험사기업

자 명단공개 ▲편취한 보험금 환수 ▲조사기관의 자료요청 권한 부여 등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험금이 불법으로 지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불법으로 편취한 보험금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환수권의 경우 별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자료제공 요청권이나 보험사기 알선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 등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중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KB·하나금융 長 출국… 해외영토 확장 사활

이복현 금감원장도 출국길 동행 싱가포르·인니서 기관투자자에 IR

국내 금융사가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이달부터 해외 기업설명회(IR)에 참여해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례적으로 금융권 해외 IR에 동행해 금융당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도모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고,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이번 출장길에는 빠졌다.

특히 금감원장의 동행은 그동안 금융권 해외 IR에 동참한 경우가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 원장의 이번 금융회사 CEO 해외 출장길 동행은 금감원이 올해 주

요 업무 추진방향 중 하나로 밝힌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의 일환이다.

지난해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간 그룹순이익 가운데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나 19.5% ▲우리 14.3% ▲신한 12.2% ▲KB 11% ▲농협 1%에 그쳤다. 이 비중은 30~40%가 넘는 해외 금융사들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해외 사업의 부진은 국내 금융사의 필수 해결 과제다. 해외사업 확장은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기 때문. 최근 주 수익원인 대출 점유율 감소로 예대마진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사업은 외화대출과 비이자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중 하나로 ‘금융회사 해외 진출 적극 지원’을 설정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

스(TF) 회의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성과를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일제히 글로벌 진출 확대를 올해 주요 경영 목표로 삼았다. 해외 기업설명회(IR)와 AD B 연차총회 등을 통해 해외 사업 확장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신한지주는 진옥동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해외 투자자 미팅(IR)을 진행했다. 진 회장은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신한은행의 현지법인인 SBJ에 대한 지원 방안과 ‘신한 퓨처스랩 재팬’을 통한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 원장은 현지 IR에 참석해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왼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몽골 칸은행, 디지털금융 맞손

‘디지로그 브랜치’ 등 혁신사례 체험

신한은행이 몽골 칸은행과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은 몽골 최대 은행 칸은행(Khan Bank)과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칸은행은 1991년 출범했다. 몽골 전 지역에 540여 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몽골 전체 인구의 약 80%가 이용하는 상업은행이다.

최근 칸은행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은행의 혁신을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신한은행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주요 경영진 및 이사회가 신한은행을 방문했다. 미래형 점포 모델 ‘디지로그 브랜치’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체험했다. 지난 4월 칸은행은 이를 벤치마킹한 셀프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특화 점포 ‘디지고(Digi-Go)’를 몽골 현지에 신설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 중심 기반의 디지털 혁신 서비스 및 전략 공유 ▲온·오프라인 채널 간 유기적인 고객경험 설계 지원 ▲금융 시스템과 연계한 혁신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문 등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산 기자

금감원, 금융산업·이슈 등 이해 돕는다

18일부터 ‘FSS 금융아카데미’ 개강 첫 강연자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및 주요 금융이슈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FSS 금융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FSS 금융아카데미의 일반과정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바람직한 주식투자, 가상자산, 외환시장의 이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청년세대의 금융생활을 돕는 주제로 강좌가 개설된다.

올해 첫 일반과정 강좌는 ‘금감원장과 MZ세대가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오는 18일 오후 3시 금감원에서 진행된다.

이 강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대표가 참석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아래 신뢰받는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일반인 또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200명의 접수를 받는다.



이복현 금감원장

‘심화과정’은 8월 이틀 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심화과정은 일반과정 수료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석자를 선발해 금융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중심으로 강좌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함께 금융감독 지식과 경험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하나銀, 도소매업자와 상생 ‘이자 캐시백’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

하나은행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둔화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도소매업자와의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도소매업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도소매업자들이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사업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

안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장님 희망드림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만원)을 캐시백하기로 했다.

매월 대출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인 NICE CB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도소매업자는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매월 나누어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캐시백 받게 된다.

/구남영 기자

민주당, 총선 앞두고 조직감사 ‘돌입’… 초선 의원실 ‘긴장’

정량·정성 평가 지역위원회 발등 불
민원 처리 등 서류 항목 11개 달해
현 지역위원장 최근 10개월 감사대상
총선 전 지역 활동 평가 지표 될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평가지표가 될 정기 조직감사를 예고하면서, 각 의원실과 지역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고 있는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들이 활동하는 협의체다. 민주당 당규 제67조는 지역위원회의 당무 전반에 대한 지역위원회 조직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감사를 활용하고 있다.

당 사무총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감사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 당무에 활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평가지표가 될 정기 조직감사를 예고하면서, 각 의원실과 지역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뉴시스

중앙당은 지난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2023년 조직감사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조직감사 평가 지표와 지역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알렸다. 5월 10일을 전후로 약 열흘간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와 시도당 일반직 당직자 직접 지역위원회를 찾아 조직 운영 실태, 당원 관리, 홍보활동, 민원 처리 등을 점검한다. 서류 제출 항목만 11개에 달한다.

현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이 감사대상이다. 정량평가 이외에 지역위원장(현역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과 경쟁력 등을 조사하는 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2022년 정기 조직감사가 올해 상반기로 밀렸기 때문에 총선 전 지역 활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당무감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실 관계

자의 반응은 담담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 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200개가 넘는 지역위원회에 당직자들이 과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여다 보지는 않을 수 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원외 지역위원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별한 건 없다. 당에서 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다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소에 하던 걸 잘 정리하는 것이 일이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의원실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백날 지역에서 민원 잘 받고 회의해봤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다. 누가 잘 정리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대선과 지선으로 조직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총선 전

에 하는 당무 감사가 더 비중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선 의원실 같은 경험이 없는 방은 낫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질 수 있다. 원외 지역위원회는 실무자가 없고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니니 실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제대로 가지 않거나,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 실무자가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지역위원회 운영을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조직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지역에 인원을 확충하거나, 미리 자료를 잘 모아 놓았을텐데 거의 3년만에 하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라서 중요성이 크다. 살생부까진 아니더라도 거의 유일한 지역위원회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지역 활동과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데, 지역이 아닌 의정활동 평가는 추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日 원전 오염수, 민간 공동조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찰단 가서 살피는 것 의미 없어
사실조사 후 안전한지 여부 검증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지와 관련해 한국이 시찰단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 민간 차원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을 공식 발표한 후, 외교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에 파견하기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 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다. 우

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사안을 막론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후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된 경험”이라며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이 대원칙이다. 정부가 형식적 시찰단 파견을 면피 정도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서서 식품의 수입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

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엔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원전 오염수 검증단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구성할 것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을 것 ▲원전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 자료를 확보할 것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에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부양은 국가 숙제… ‘가족돌봄’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단순 개인·집안의 가족문제 아니라
국가적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버이날인 8일 ‘가족 돌봄’(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청년들과 만나 “가족 부양은 단순한 개인이나 집안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획일적, 무조건 절금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에 전달했고, 그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 여러분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 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족 돌봄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 모두가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기는 버거운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민생특위인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2년 전, 언론에 ‘청년 간병살인’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에 가족 돌봄 청년 카테고리가 없는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여러분께

서 주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장 목소리 녹여서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국가 예산에 꼭 반영돼 당장 도움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부양한 당사자가 직접 어려움도 토로했다. A씨는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 청년은 희망적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고,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고 나면 남은 게 없어 큰 상실감과 박탈감은 물론 사회 재진입도 어렵다”며 “돌봄과 학업, 경제활동 삼중고를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한 장기적 심리상담과 의료, 간병, 교육비, 긴급콜센터 등 체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격주 1회 원칙으로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與, 尹 정부 출범 1주년 ‘다시 경제다’ 사진전

미래의 돛 퍼다 등 40여 점 구성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사진전은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퍼다 등 4개 분야 40여 점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열린 사진전 개막식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지난 1년을 회상하고 오직 민생, 다시 경제를 잘 살리는 데 매진하는 계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축사에서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속

에서 국민과의 접촉이 사실상 많이 왜곡된 실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초를 만들어 가는 시기였다”고 주장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당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혜를 잘 모아 당을 잘 추슬러왔다. 안정적인 모습 속에서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전시회에 대해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다”며 “1년 전 정권 창출의 초심을 되새김과 동시에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민생’을 최우선시하며 경제 살리기와 남은 국정과제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석유화학, ‘흐린 뒤 맑음’… 신사업 내세워 적자 메운다

화학제품 수요 위축·공급 과잉
에틸렌 스프레드 ‘만들수록 손해’

LG화학·한화솔루션 등 영업이익 ↓
2분기 성수기… 흑자 전환 기대

첨단소재·생명과학 등서 매출 ↑
변동성 큰 석화업황 영향 덜 받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내외적 영향으로 1분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회복될 줄 모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 상반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을 제외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은 거의 발표를 끝마쳤다. 올해 들어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영향을 기대하며 석유화학 업계의 실적 상승을 기대했지만, 1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진한 업황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이후 줄



LG화학 대산공장 전경.

/LG화학

어든 중국 내 수요 회복은 더딘 편이다. 유가가 올라 원유 기반의 나프타 가격도 높아져 화학제품 수요도 위축됐다. 여기에 석화업계의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가격) 가격 회복이 더더 영업이익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올해 1분기 내내 손익분기인 톤당 30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손익분기가 톤당 300달러 이하가 되면 ‘만들

수록 손해’라는 공식이 적용된다.

실제로 LG화학은 올해 1분기 석유화학 사업에서 50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낸 것이다. LG화학 측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가전과 건설 업황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요 제품 수요가 줄었고, 영업이익도 동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LG화학 콘퍼런스콜에서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소비 및 투자, 환율 등 불확실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힘난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2분기부터는 성수기 진입 및 점진적 수요 회복세로 석유화학 사업은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도 화학 시장 악화로 인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3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6.9%로 떨어졌다.

금호석유화학 1302억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수치다. 11일 실적 발표를 예고한 롯데케미칼도 올해 1분기 144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수요 부진에 공급 과잉까지 동시에 일어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석화 업계는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업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사업 매출 비중을 늘리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다. 신사업

을 내세운 한화솔루션과 LG화학은 석화업황에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G화학은 첨단소재, 생명과학에서도 영업이익을 올리고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8523억원 영업이익을 올리며 적자폭을 대폭 감소시켰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신사업으로 내세우며 1분기 반등의 주역이 됐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002억원, 영업이익 2714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8.9%, 영업이익은 85.1%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만 29.4% 증가한 133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호석유화학도 사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사업에선 타이어용 고품 합성고무와 라텍스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기초사업 부문에서는 합성수지 판매 범위 및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여기에 배터리 소재로 사용 가능한 탄소나노튜브(CNT)의 제품 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이노·SKIET, ‘탄소 포집 시장’ 개척 나서

가스 분리막社 ‘에어레인’에
자사 LiBS 제조 기술과 결합

습식·건식 한계 극복 대안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가스 분리막 전문업체 ‘에어레인’에 투자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용 분리막(LiBS) 분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의 핵심인 ‘포집’에 활용해 탄소감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에어레인은 가스 분리막 전문기업으로 분리막 생산과 이를 이용한 분리막 모듈·시스템 설계, 생산,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어레인은 국가지정 분리막 연구실에서 시작해 사업 초기 에어프로덕츠, 아사히글라스 엔지니어링, 미츠비시 가스화학과 같은 해외 선진사 OEM 제품 생산과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쌓아왔다. 현재는 소재 설



투자 계약 서명식 후 강동수 SK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부문장(왼쪽부터)과 하성용 에어레인 대표이사, 이병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 BM혁신실장이 각각 서명한 계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계부터 조달, 분리막·모듈 생산, 시스템 설계·제조·운영·관리 등 가스 분리막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상업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 포집 분야에서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고순도 청정수소 생산 시 필요한 이산화탄소 분리 시스템을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 발전소에 공급하는 사업 확장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LiBS 제조 기술을 에어레인의 가스 분리 기술과 결합해 분리막 포집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높은 효율성을 가진 신규 고성능 분리막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고, 에어레인이 현재 보유한 분리막 기술 고도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탄소 포집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분리막 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

을 모색한다.

분리막을 활용한 탄소 포집은 기존 습식, 건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보편화된 습식은 액상 흡수제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는 방법으로 규모를 키우 포집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부지 소요, 흡수제 재생에 많은 에너지 필요, 흡수제 분해 및 그에 따른 환경 유해 물질 발생 등이 걸림돌이다. 건식은 에너지 소모가 습식보다 적은 고체 흡착제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비용을 아끼고 설비 소형화가 가능하지만, 흡착제 마모와 뭉침 현상 탓에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막을 활용하여 포집하는 분리막 방식은, 막 이외에 화학 물질, 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 폐기물·폐수 발생이 없고, 분리막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작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어 설비, 배관 등이 복잡한 공장에 최적인 방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CCUS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탄소 포집 시장 규모도 성장이 기대된다. 탄소배출 자체를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고, 대기에 남아있는 기존 탄소 또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세계적인 CCUS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50년까지 관련 장비 시장 규모만 누적 45조엔, 연간 10조엔의 경제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 CCUS 업계에서는 이중 포집 분야에서만 60% 가량의 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부문장은 “에어레인과 협력으로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에서 반드시 필요한 CCUS 분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공동 투자한 분리막 포집 기술 뿐만 아니라, SK에너지의 활용 기술, SK에스온의 저장 기술 등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CCUS 분야 경쟁력을 적극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LG전자에 무선청소기 폐배터‘리턴’하세요”

제조사 관계없이 폐배터리 반납 후
새 배터리 구매 시 최대 2만원 할인

LG전자가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로 다시 깨끗한 배터리를 만들며 지속 가능한 사회에 힘을 보탠다.

LG전자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배터리 리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가 직접 자원 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 배터리를 구입할 시 할인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LG전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조사와 관계없이 사용했던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를 반납받는다. 반납후 새 배터리를 구매하면 2만원을 할인해준다. 폐가전 수거함에 폐배터리를 반납하면 홈페이지에서 1만1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LG전자는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배터리 1개에서 니켈(31.91g), 코발트(4.21g), 리튬(6.06g), 망간(2.04g)의 희유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새로운 배터리 재료로 재활용하며 선순환을 실현할 예정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에도 폐배터리 수거캠페인을 통해 2개월간 12.5톤

을 수거한 바 있다. LG전자가 운영하는 칠서 리사이클링센터에 2021년 수거된 폐배터리가 약 8톤, 자원 순환에 크게 기여한 셈. 이를 통해 추출한 희유금속으로 A9S 배터리 2만2000개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의 리더로서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LG전자가 실천하고 있는 ESG 경영의 일환이다.

/김재웅 기자 juk@



日 대표하는 ‘토요타 크라운’, 국내 상륙

크로스오버 모델 출시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무장하고 ‘기술의 토요타’를 증명하려는 모습이다.

토요타코리아는 다음달 5일 국내에 크라운을 공식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크라운은 토요타를 대표하는 모델이다. 1955년 처음 양산을 시작해 지금까지 플래그십으로 자리잡아 일본 럭셔리 세단을 대표해왔다. 일본에서 크라운이

라는 단어가 럭셔리를 대표하게 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크로스오버다. 2.5L 하이브리드(HEV)와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등 2개 형태로 들어온다. 해머헤드 디자인을 비롯한 크라운스러운 외관, ‘아일랜드 아키텍처’ 콘셉트로 직관적이고 편안하게 만든 실내 공간을 갖췄다.

/김재웅 기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새 CEO 후보 7월께 확정

KT, 사외이사 선임절차 돌입

오는 16일까지 주주추천 접수받고
선임과정서 사내이사 참여 배제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하고
대표이사 선임 등 개선방안 마련

KT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는다. 특히 KT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부터 선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사내이사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예비 후보는 주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다.

KT는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구축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KT는 지난 4월 17일 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추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뉴 거버넌스 구축 TF(이하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소유분산기업의 내부 참호 구축 및 낙하산 인사 방지와 함께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KT 지배구조 체계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

/뉴시스

구축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TF는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내외 통신사 및 소유분산기업 사례 검토, 글로벌 선진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KT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TF 위원간 5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지배구조 개선의 첫번째 단계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KT의 경우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기업인 점을 고려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방식을 도입한다. 8일 기준으로 KT 주식을 6개월 이상, 1주라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주주 추천은 8일부

터 16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주주 추천과 함께 외부 전문 기관(씨치핍) 추천 후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군을 구성하되, 주주 추천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외부에서 제기된 경영진의 내부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고 후보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내이사의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다.

사외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인선자문단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뉴거버넌스구축 TF가 후보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TF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선자문단은 사외이사 후보들을 전문성·독립성·공정성·충실성 측면에서 심층평가하고 심사한다. 인선자문단이

1차 압축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여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TF는 또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절차 및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주주 가치 제고 및 내부 참호 구축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1인으로 한정하는 등 사내이사 수 축소(사내이사 3인→1인), 이사회 내 위원회 역할 조정, 대표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적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TF 위원간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T는 TF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주주 추천 후보를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신입 사외이사를 6월 말 선임할 예정이다.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신입 대표이사 후보자를 7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채운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네이버 “올 여름 ‘하이퍼클로바X’ 첫 선”

〈초거대 AI 모델〉

최수연 대표 “이미지·음성 이해
계산기·지도 등 API 활용 답변도”

“창작·여행예약 서비스 고도화 적용
이용자 경험 확대… 윤리 등 논의중”



클로바스튜디오가 대폭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초거대 AI 모델이 검색 쇼핑 외에 블로그 창작이나

네이버가 올 여름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인다.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사진)는 8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 여름 생성형 AI인 차세대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하이퍼클로바X는 이미지 및 음성을 이해하고 계산기, 지도 등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답변도 가능하다”며 “검색에서는 생성형 AI 사내 베타 테스트를 상반기 중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B2B(기업간 거래) 제품으로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맞춤형과 데이터 이슈를 잘 해결해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며 “고객의 데이터와 하이퍼클로바X를 결합해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도록

여행 예약 서비스 고도화 등에 적용해 이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다”며 “AI 윤리와 데이터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계 등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장한 AI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진출과 관련 “일본에서 연내 라인웍스. 네이버웍스 등 생산성 도구에 하이퍼클로바X를 접목한 기업형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네이버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AI와 결합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또한 올해 초 인수를 완료한 북미 패션 C2C(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포시마크는 영업비용 효율화와 마케팅 비용 최적화 등 노력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돼 당초 내년 목표였던 EBITDA(상각 전 이익) 흑자 전환을 이번 분기

에 조기 달성했다.

최 대표는 “포시마크는 대다수 미국 패션 C2C 플랫폼이 역성장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이용자 리텐션을 기반으로 성장을 지속했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비용 효율화와 신규 수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나 늘어난 33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가 증가한 2조 280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10% 가까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인건비 성장이 둔화된 것과 마케팅비 효율화, 포시마크의 EBITDA 흑자 달성 등이 주 원인이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 플랫폼 8518억원 ▲커머스 6059억원 ▲핀테크 3182억원 ▲콘텐츠 4113억원 ▲클라우드 932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새로운 주주환원계획에 따라 향후 3년간 최근 2개월 평균 연결 잉여현금흐름의 15~30%를 전액 현금 배당해 지급할 것”이라며 “총 환원규모를 30%로 측정했지만 이보다는 유연한 레인지로 15~30%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운정 기자

SKT “이프랜드서 美 할리우드 산 만나요”

실사이미지 기반 명소 5곳 선보여
남산서울타워·강남역 사거리 등

SK텔레콤이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 내 소통공간인 이프스퀘어(if square)를 통해 실사 이미지를 기

반으로 제작된 국내외 명소들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SKT가 선보이는 국내외 명소는 미국 LA 할리우드 산(Mt. Hollywood), 남산 서울타워, 청계천, 강남역 사거리, 홍대 입구역 사거리 등 총 5곳이다. 이번 명소

들은 기존의 이프스퀘어가 그래픽 방식으로 제작된 것과 다르게 실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돼 현실감을 크게 높였다.

SKT는 이번 실사 기반 국내외 명소 오픈에 대해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전세계 이용자들이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자유롭게 구경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운정 기자

KT ‘복잡한 코딩’ 블록 쌓듯이 쉽게 공부

‘AI 코디니’에 ‘AI로봇큐브’ 등 추가

KT가 AI(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AI 코디니’에 새온의 자율주행 자동차로봇 ‘알티노’와 스마트큐브랩스의 ‘AI로봇큐브’를 새로운 AI 프로그래밍 교구로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KT ‘AI 코디니’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존 코딩 방식 대신 블록 형태로 쌓아가며 AI 코딩을 잘 모르는 사용자들도 AI 코딩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AI 교육 플랫폼이다. 초등학교나 중학생 등 코딩 입문자들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단히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번 협력으로 KT ‘AI 코디니’에 새온의 자율주행 로봇 교구 ‘알티노’와 스마트큐브랩스의 ‘AI로봇큐브’가 연동돼, 학생들은 더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



KT AI 코디니를 활용하고 있는 서울 등촌동의 한 러닝센터에서 아이들이 AI 로봇 교구를 이용해 학습하고 있다.

/KT

래밍을 배울 수 있게 됐다. 카메라 영상으로 사용자를 인식하거나 음성명령으로 ‘알티노’ 로봇의 자율주행을 명령하거나, 음성과 동작인식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난이도로 ‘AI로봇큐브’를 게임처럼 만들 수 있어 더 창의적인 AI 코딩 교육이 가능하다.

/채운정 기자

LG U+, 커넥티드카 강소기업에 개발금 1억

‘차량용 앱 서비스 공모전’ 개최
현대모비스·오비고 3사 협력

LG유플러스는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위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개발금을 지원하는 ‘차량용 앱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용 앱 서비스 공모전은 차량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적용가능한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급성장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특화 서비스 선도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공모작에 대한 정확한 기술성 평가를 위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현대모비스’,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오비고’와 함께 공모전을 개최기로 했다. 3사는 지난 2021년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국산화를 위해 구성된 ‘소프트웨어 개발협력생태계 컨소시엄’에 참여해 협력해오고 있다.

각 사는 사업성·실현가능성·창의성·기술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발표 과제를 거쳐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채운정 기자

SG發 8개 종목, ‘하따’ 노리는 개미들… ‘빚투’ 경고음

〈하한가 따라잡기〉

증권가, 반등 가능성 시일 걸려
다올투자증권만 30% 가까이 ↑
하락률 높아, 기대하고 매수 위험
주가 안정화 최소 6개월 이상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휘말려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반등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등 가능성보다 주가조작 이전 가격으로 회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당부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의 코스피, 코스닥시장 종목별 주가등락률 순위에서 SG발 사태 관련주들이 하락률 10위권안에 7개 종목이 포함됐다. 8개 종목중 다올투자증권만 지난달 25일 이후 30%가까운 반등세를 보일 뿐이다. 급격한 하락세에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매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의 주가는 지난달 28일 반짝 반등한 이후 다시 내리막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거나 상승탄력을 못받고 있다.

이기간동안선광(-80.10),대성홀딩스(-79.51),서울가스(-78.95),삼천리(-71.87),다우데이터(-67.71)세방(-62.41) 순으로 하락률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SG발 주가조작 사태가 표면화된 지난달 24일부터 8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삼천리(837억 원), 다우데이터(622억 원), 하림지주(522억

원), 서울가스(382억 원), 대성홀딩스(352억 원), 세방(303억 원), 선광(303억 원) 등 7개 종목을 순매수했다.

개미(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낙폭이 큰 종목에 도전하는 ‘하따(하한가 따라잡기)’, 일명 불나방 전략이 유행처럼 번지는 모습이지만 단기간에 반등추세를 형성하지 않으면 주가 2차 하락으로 손실이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가수익비율(PER)이 40~50씩 되는 종목들은 하락률이 높다고 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하면 아주 위험하다”며 “예를 들어 15배 오른 상태에서 80% 내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손실률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가조작 전 가격을 확인해 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성홀딩스의 경우 현재도 PER가 115 정도로 집계되기 때문에 고평가위험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한국 상장사의 코스피 200 기준 PER는 13.3배이며, PER가 10 이하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SG발 주가조작 사태는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반등 기회가 쉽사리 잡힐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징역 5년·10년씩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수사기간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며 “주가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보통 주가 조작 사건에 연관됐던 종목들은 주가 조작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며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당분간은 반등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며 “저가매수 기회로 판단할 경우 오히려 투자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은 하락세를 멈춘 모습이다. 특히 하림지주는 지난 2일 ‘매수’ 투자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림지주가 양재IC 개발 관련주로 기대감이 실린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하림지주는 PER가 3.34선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30평대 서울아파트 8억… 건본주택 구름인파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15일 특별공급·16일 1순위 등 청약
역세권·학세권·숲세권 트리플 입지

부동산 수요자들이 돌아왔다. 지난 겨울, 건본주택 내 사람의 발길이 뜸했던 것과는 판이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두산건설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공급하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424가구) 건본주택에 개관 이후 4일 동안 1만여명의 방문객이 북적였다. 오픈 첫날부터 주말까지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로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찾았다. 또 건본주택 내부에서는 유니트 관람을 위한 대기줄은 물론 청약 관련 상담까지 이어졌다.

은평구 응암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여·38)는 “지하철역과 학교, 공원 등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마음에 든다”며 “서울 새 아파트 30평대를 7억~8억원대로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청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수요자들이 관심을 끈 이유는 역세권·학세권·숲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트리플 입지란 분석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있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게다가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한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분양가도 관심을 끈다. 84㎡ 분양가는 7억6060만원~8억8500만원 수준으로 인근 ‘백련산 SK뷰 아이파크’(2020년 준공) 84㎡보다 1억~2억원 싸다. 또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비규제 단지다. 때문에 투자 목적인 수요자들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건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유니트 관람을 위해 대기 중이다. /두산건설

한편 분양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삼양월드컵파크 9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아모그린텍, 고효율 자성 부품 성장 기대

株라쿨라의 종목

고성장 첨단 소재기업 재평가 전망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아모그린텍에 대해 테슬라 등 고효율 자성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2023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다. 주가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정 주가로 2만6500원을 제시했다.

이승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올해 테슬라 등 전기 차용 고효율 자성 부품 수요 증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신사업 성공으로 동사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모그린텍은 고효율 자성 소재를 국내 최초, 세계에서 3번째로 자체 개발한 기업이다. 2019년 기술특례 상장 이후 오랜 기간 기존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사업부의 낮은 수익성과 신사업 매출 발생 지연으로 저조한 이익률이 지속됐다.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기존 FPCB 사업을 축소하고, 신사업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높은 실적 성장을 이뤘다. 올해는 신사업 매출이 더욱 확대되며, 고성장 첨단 소재기업으로 재평가될 전망이다.

동사는 나노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소재와 기능성 부품을 제조한다. 그 중에서도 첨단 소재 사업부의 대표 제품은 고효율 자성 부품으로 인버터, 컨버터와 같은 전력변환 장치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전력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현재 글로벌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리비안, 제너럴 모터스(GM) 등과 같은 다른 전기차 업체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3년에 사이버 트럭을



자료/리서치알음

출시 예정이며, 리비안은 고효율 트럭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평균판매가격(ASP)이 상승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 테슬라가 모터에 들어가는 희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동사의 고효율 자성 부품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동사의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2030 재테크, 부동산 투자 예정 ‘54.5%’

주춤 하던 주택 매수세 다시 살아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투자 시장이 밝지 않은 가운데 20·30세대 절반 이상이 향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상품으로는 기존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726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6.0%가 ‘예’라고 응답했다.

40.8%는 현재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3%였다.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20·30세대에서는 현재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9.6%로 낮았

지만 향후 부동산에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54.5%)이 절반 이상이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한동안 주춤하던 20·30세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3월 서울시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3234건 중 20·30세대가 매수한 건수가 116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98건)을 기점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은 ‘기존 아파트’가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20.7%) ▲상가, 오피스(7.7%) ▲오피스텔, 토지(각각 6.1%)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kdh@

SK하이닉스, ‘비용 절감·효율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소통행사서 비상 경영 선포
연차 사용 권장·직급 간소화 등
사내 공모전 통해 개선안 소개

SK하이닉스가 경영 위기를 정상화 기회로 삼았다.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중장기적 과제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박노정 사장 주최로 ‘함께하는 더(TH)E’ 소통행사’를 통해 사실상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이날 박 사장은 전달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효율 개선안을 소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차 사용률이 높은 직원에 복지포인트를 지



SK하이닉스 인천 행복문. /SK하이닉스

급하고 장기휴가를 권장하거나, 거점 오피스 추가 설치 및 통근 버스 교체를 보류하는 등 내용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에도 연차 사용을 권장했으며, 올해 인사에서는 팀장 등 직급을 간소화하며 임원과 팀장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바 있다. 최근에는 휴일 거점 오피스 근무에

제한을 두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를 통해 수백억원대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차 수당이 1일당 15만원 수준, 임직원 3만명이 하루씩만 연차를 소진해도 45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한달에 150만원에 달하는 직급 수당과 거점 오피스 임대료와 운영 비용, 대당 수익원의 통근 버스 비용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경영 개선책을 통해 그동안 일부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을 찾아 효율을 되찾는데 중점을 뒀다. 경영 위기 속 임시방편이 아닌, 궁극적으로 회사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만 알려져있지만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은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며 “호황기에는 개선하기 어려웠던 비효율적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찾아 고치자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삼성전자와 비교해 사업 효율에서 다소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전자 역시 역대급 위기 속에서 비용 절감에 나섰지만, 임직원 근무와는 별개로 일부 비용 절감과 출장 제한 등으로 국한한 것도 이미 효율성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여기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게 휴일 근무. 내부에서도 실제 업무와는 관계없이 수당을 목적으로

로 한 휴일 근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거점 오피스가 정착하면서 이같은 ‘악습’은 더 확대,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직원들간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알려졌다.

팀장 업무 추진비도 논란 거리 중 하나였다. 실제 업무와는 관계없이 직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업무 추진비를 유용하는 데 대한 의혹도 여럿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2021년 말 다운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에도 직원들 요구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며 “이번 경영 위기를 기회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로템-하나은행, 철도 민간사업 뛰어든다

SOC 건설 위해 인프라펀드 투자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 계획

현대로템이 하나은행과 함께 철도 사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펀드에 투자한다.

현대로템은 하나은행과 철도와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및 개발 사업 투자를 위한 인프라펀드 투자계약서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과 하나은행 등 투자자들은 인프라펀드 투자계약서를 체결, 펀드 참여를 확정했으며 운용은 하나대체



김정호 현대로템 레일솔루션본부장(왼쪽 네번째)과 전호진 하나은행 IB사업본부장(왼쪽 다섯번째)이 MOU를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산운용에서 맡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된 인프라펀드는 SOC 건설, 수소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 및 E

SG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발생하는 수익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운용방식은 우선 투자금 일부를 조성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때마다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및 지방 지역의 급행철도, 일반철도, 트램 사업에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 철도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노선 신설 및 기존 철도시설 개량까지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종점 연장, 지선 신설 등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개발을 주도했

던 철도 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됐다.

현대로템과 하나은행은 이번 펀드 조성을 계기로 철도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철도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된다. 투자금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만큼 투자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금융사인 하나은행과 철도차량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참여가 사업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하나은행과의 전략적 협력이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발전시킬 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사의 역량을 모아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2조원 HVDC 케이블 수주… 역대 최대 규모

(초고압직류송전)

북해 해상풍력단지
독일·네덜란드 내륙 이어

LS전선이 전선 업계 수주 기록을 갈아치웠다.

LS전선은 최근 네덜란드 테네트사에서 2조원대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북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 네덜란드 내륙을 HVDC 케이블로 잇는 내용이다. LS전선은 벨기에 건설업체 안두넬과 데니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케이블 수주 금액만 2조원에 달한다.



LS전선 동해 HVDC 공장.

LS전선이 수주한 금액은 전세계 전선업계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다. 2026년부터 525kV급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테네트사로부터 1년간 장기 신뢰성 시험을

통과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LS전선은 2026년부터 525kV급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525kV급 케이블은 HVDC 중 최고 전압 제품으로, 320kV급과 비교해 송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전압형(VSC) 기술로 송전 방향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전세계에서도 소수 업체, 국내에서는 LS전선만 보유하고 있다.

LS전선은 “HVDC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 등 시장 확대에 대비해 왔다”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SK네트웍스, ‘모빌리티’로 안정 경영 확인

매출 2.4조·영업익 531억 실적 공시
렌터카·스피드메이트 영업익 20.5% ↑

SK네트웍스가 1분기에도 성장을 이어나가며 안정적인 경영을 확인했다.

SK네트웍스는 1분기 매출 2조4497억원에 영업이익 531억원을 기록했다. 8월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22.6% 증가하며 코로나19 엔데믹 효과를 본격화했다.

이번에도 미래 중점 사업인 모빌리티가 주인공이었다. SK렌터카와 스피드메이트가 매출 5231억원에 영업이익 50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 동기(5389억원)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20.5%나 증가하며 다시 한 번 미래 가능성을 증명했다.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가 중고차 매각을 늘린 데 더해 제주 전기차 차박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연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등 활동으로, 스피드메이트는 수입차 부품 매출과 정비 방문 고객 회복으로 이익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위커힐 역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정상화하며 3분기 연속 흑자에 성공했다. 매출 639억원에 영업이익 16억원을 기록

하며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 35.6%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개관 60주년 기념 마케팅과 인천공항 환승호텔, 마티나 라운지 정상화도 효과가 컸다.

정보통신 사업도 단말기 판매량 감소 추세에 대응한 물류 최적화 등 비용 효율화로 견조한 실적을 냈다. 매출 1조2499억원에 영업이익 170억원이다. 민팅도 중고폰 매입과 판매 증가를 이뤄 내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나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화학 트레이딩 사업 역시 수급 조절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매출 3230억원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 성장을 이어갔다.

가전 시장 침체로 SK매직만은 어려웠다. 매출이 27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13억원으로 45.7% 쪼그라들었다. 계정이 234만개를 돌파하긴 했지만 시장 경쟁 심화와 원가 인상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계정을 늘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ESG 경영 성과도 자랑했다. 지난 2월 글로벌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000억원대 자사주 매입과 700억원 규모 소각으로 주주소통과 가치를 높였다.

/김재웅 기자

홈쇼핑

‘텐텐제’서 다양한 혜택 제공

홈쇼핑이 연중 최대 특집 행사 중 하나인 ‘텐텐제’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8일 홈쇼핑에 따르면 사전에 텐텐제 오픈 알림 ‘푸시(PUSH)’를 신청한 고객에게 얼리버드 적립금 1000원을 10일에 준다. 또 추첨을 통해 총 100만 원 상당의 시그니엘 서울 2인 숙박권 패키지를 선물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블룸호텔 제주’서 아트스테이 객실 선포

교원그룹, ‘다이브인’과 협업

교원그룹 ‘블룸호텔 제주’가 몰입형 아트 플랫폼 ‘다이브인’과 협업을 통해 아트스테이 객실을 선보인다.

8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다이브인 아트스테이’ 객실은 고객들에게 호강스와 예술 작품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

다. 단순히 그림이나 조형물을 비치해 실재를 꾸미는 것이 아닌 객실 전체를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객실에 머무는 동안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이브인 아트스테이 객실은 이상원, 김판목, 조예린 등 우리나라 아트 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명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로 조성됐다. /김승호 기자



창업아카데미

무료 교육프로그램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일정

A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B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교육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목표

실전교육 ➡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 성공적인 창업 배출

교육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직접 강의 (CEO 35년 경력)

교육약력

1996년 ~ 現 : 대한홍삼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방송 브레인TV 대표이사
2005년 ~ 現 : 햇터라이프 대표이사
2009년 ~ 現 : 한삼장홍삼 대표이사

교육주관



2003. 9. 12 설립

햇터그룹지주회사

자금/투자 관리
법무 및 행정 관리
세무회계 관리



2003. 10. 1 설립

30천만이상 시청자 보유
방송전문기업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 기획 및 송출
광고주 관리



1996. 9. 3 설립

국내 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상품 개발 및 제조
브랜드 홍보 / 관리
대리점 관리



2009. 10. 1 설립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온라인 전문 유통
오프라인 전문 유통
해외수출 전문 유통



2005. 5. 20 설립

업계최초 계층형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서비스
물류/상품 서비스

교육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7번출구 또는 7호선 6번출구 ➡ 600M

교육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차장 황 선 영 010-4480-0045**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미래세대 도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만든다

중기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표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전면 시행
국경·공간 초월한 실증환경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등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전국에 10곳을 만든다.

올해 2~3곳을 시범 조성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일부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에 대해 모든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해 혁신을 전폭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해외 실증거점 조성을 통한 충분한 실증 지원,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인증·허가 등 원스톱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서 (왼쪽부터)정문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한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먼저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할 수 있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을 허용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외국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기관인 유엘(UL) 솔루션과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치료제 등의 첨단바이오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MOU)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 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또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

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해 성능과 안정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 신산업 보험요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혁신 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기술개발) 등 표준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 가속화를 위해 민관 협업과 자금, 공공조달, 인력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반려동물 사료 싸게 팔면 공급 안 해”

공정위,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
독점 수입 권한으로 불공정행위 행사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독점 수입 업체가 동물병원 등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하다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표’를 제공해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영국 사료 회사인 테크라가 생산하는 처방식 사료에 대한 국내 독점 수입 판매사로, 동물병원은

이 회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의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86개社 선정

중기부·소진공 지원… 경쟁률 3.3 대 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8일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동사업에는 총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협동조합은 업력, 규모, 매출, 고용 기준에 따라 ‘초기·성장·도약’의 3단계 구분하며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

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공동장비의 경우 30%, 그 외 공동사업은 20%다.

먼저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뽑혔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옷칠공업), 느티나무협동조합(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안전보건공, 조선업 外人 산재예방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맞손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 마련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서울 랜드마크 타워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과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조선업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은 2021년부터 증가하고 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로 구인난이 심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약 2배인 5000여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숙련기술인력(E-7)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환경변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최성원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왼쪽)와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지난 4일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부터 구축한 협력 범위를 기존 ‘콘텐츠 공동개발’에서 ‘통역강사 양성’ 및 ‘체협교육’으로 확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희망포럼’ 참가자 모집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6월22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2023년 기업승계 희망포럼’ 참가자를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시작한 기업승계 희망포럼은 경제·산업 환경 변화와 1·2세대 중소기업인 간 소통에 대한 명사 강연 등으로 꾸러져 참가자의 95% 이상이 만족하는 명품포럼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올해 포럼에선 최근 이슈인 ChatGPT를 비롯해 세대 간 소통과 리더십에 대한 명사들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포럼은 1·2세대 중소기업인 동반으로 참가해야하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식당 가려면 큰 맘 먹어야”… 꺾일 줄 모르는 외식 물가

외식 물가 29개월 오름세
누적 상승률 16.8% 달해
햄버거·피자 20% 이상 올라

외식·먹거리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햄버거와 피자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각각 약 28%, 24% 올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외식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117.15(2020년=100)로 한달 전보다 0.7% 상승했다. 이는 전월비 기준 2020년 12월부터 29개월 동안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이 기간 누적된 외식물가 상승률은 16.8%에 달한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기준 작년 9월 9.0%까지 오른 뒤 지난달 7.6%로 둔화했는데, 외식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은 매달 커진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햄버거(27.8%), 피자(24.3%), 김밥(23.2%), 갈비탕(22.5%), 라면(21.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자장면(21.0%), 생선회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햄버거 물가가 17.1% 올라 2004년 이후 19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식 품목인 치킨값 상승률도 6.8%로 8개월 만에 반등했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햄버거 가게 모습. /뉴스시

(20.4%), 떡볶이(19.9%) 등도 2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누적된 원유·곡물 등의 원가 가격 상승분과 인건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외식 물가의 오름세는 매달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식료품 수요가 외식 수요로 옮겨간 영향도 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두어차

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맥도날드, 노브랜드,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맘스터치 등 주요 브랜드가 줄줄이 값을 올린 것. 한 예로 맥도날드의 빅맥 단품 가격이 5000원을 넘었고 버거킹 와퍼 가격도 7000원을 넘어섰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3월 일부 피자 단품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2월 피자와 사이드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도미노피자도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가격을 인상했고, 피자헛, 파파존스, 피자알볼로 등도 지난해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도 도미노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대표적으로 교촌치킨은 지난달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렸다. 간장 오리치날 제품 가격이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올라 인상률이 18.8%에 달했다. 인기 메

삼양식품, 소스사업 강화… 주식 부문 ‘글로벌 톱100’ 목표

〈주식〉

마케팅·판매채널 확대 역량 집중
신규 라인업 확대, 협업 적극 추진

삼양식품이 ‘주식(主食) 부문 글로벌 톱100 기업 진입’을 목표로 소스사업부문을 강화한다.

삼양식품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스·조미소재 매출액은 전년대보다 36% 증가한 29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액상소프만 따로 판매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2018년 불닭소스를 정식으로 출시한 이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오고 있다. 오리지널 불닭소스를 시작으로

까르보불닭소스, 불닭마요 등을 추가로 선보이고 외식업체와의 협업, 해외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말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면서 밝힌 소스 부문 강화 방침에 따라 마케팅과 판매 채널 확대에 집중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초 tvN 예능 ‘서진이네’에 불닭소스 PPL을 진행했으며, 이달 중엔 불닭소스 신제품 ‘불닭치폴레마요’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진이네’ PPL을 통해 특색 있는 홍보 효과를 거뒀다. 2월 말 첫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 불닭소스 언급량이 방송 이전 대비 월평균 약 1000건 이상

증가했고 연관 검색어 중 꿀조합, 들기름 막국수, 우동면 등 레시피 관련 키워드가 급증하며 테이블 소스뿐만 아니라 요리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소스로 부각되고 있다.

삼양식품은 판매채널 확대에도 나선다. 편의점, 마트에서 트레이더스나 롯데마트 맥스와 같은 창고형 마트, 면세점 등으로 입점 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불닭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쇼핑 채널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삼양식품이 소스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소스시장의 성장성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집밥 트렌드가 부상한 데

다 해외에서도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국 소스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소스류 생산액은 2016년 1조6584억원에서 2020년 2조296억원으로 22.4% 늘었으며, 같은 기간 국내 소스류 수출액도 9878만 달러에서 1억8347만 달러로 연평균 13.2% 성장했다.

/신원선 기자

불닭소스 /삼양식품



롯데백
‘알폰스 무하’ 전시회 진행

롯데백화점이 9월30일까지 본점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그라운드 시소 명동’에서 ‘알폰스 무하: 더 골든 에이지’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그라운드 시소명동은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명작들을 미디어 아트로 전시해 큰 화제를 모았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알폰스 무하: 더 골든 에이지’는 아르누보의 거장이자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 알폰스 무하의 인생과 그가 남긴 명작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구현한 전시회다.

알폰스 무하의 인생을 바꾼 대표 작품 ‘지스몽다’부터 ‘황도 12궁’과 ‘슬라브 서사시’, ‘사계’까지 알폰스 무하의 대표작품을 선보이며 작품마다 작가의 생애와 연결해 특별한 전시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시간 단위로 진행되고, 온라인에서 예매한 고객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eoh@

광동제약
문수민 작가 개인전 개최

광동제약은 서울 서초동 본사 2층에 위치한 가산천년정원에서 신진 작가 문수민의 개인초대전 ‘ONE DAY(어느 날)’을 진행한다. 전시기간은 5월8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한 달간이다.

이번 초대전은 ‘익숙한 것의 재조명’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제로 나무, 우중(雨中), 설경 등 테마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수민 작가는 익숙한 풍경을 낯선 질감으로 표현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주목 받는 유망 신진작가로, 권위 있는 글로벌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통업계 상반기 쇼핑축제

G마켓·옥션, 19일까지 ‘빅스마일데이’

200여개 브랜드, 3만여 셀러 참여

G마켓과 옥션이 19일까지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연다.

200여 대형 브랜드는 물론, 3만여 셀러가 참여한다. 직전행사보다도 15% 많은 셀러가 참여하며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특가탭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매일 자정마다 최저가에 도전하는 상품을 공개한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규 코너도 마련했다. ‘소문내고 캐시적립’ 코너를 통해 상품을 친구에게 공유하고 친구가 구매하면, 결제액의 3%를 스마일캐시 형태로 적립해준다.

빅스마일데이 페이지 쿠폰탭에서



G마켓과 옥션 회원 전원에게 매일 할인 쿠폰 2종을 지급한다. 멤버십 회원인 스마일클럽이라면 같은 쿠폰을 매일 한 장씩 더 받을 수 있다.

이번 빅스마일데이에는 쇼핑 편의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능들도 선보인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의 초개인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 관심사에 맞는 특가상품을 추천해 줌으로써, 고객의 쇼핑 피로도를 크게 낮췄다.

/김서현 기자 seoh@

컬리, 마켓컬리 캠핑대전 기획전

1300여개 상품 최대 50% 할인

컬리가황금연휴가 이어지는 5월을 맞아 ‘마켓컬리 캠핑대전 기획전’을 18일까지 연다.

바비큐부터 각종 밀키트, 전통주, 캠핑 필수 장비 및 소품 등 1300여가

지 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최대 30% 한정 특가도 진행한다. ‘그리즈 시그니처 램’의 뉴질랜드산 프렌치 랙과 한 ‘샘미트코리아’의 무항생제 1등급 암돼지 목살 구이 등이 준비됐다.

/김서현 기자

티몬
티몬투어 여행박람회

티몬이 28일까지 2023 티몬투어 여행박람회를 연다. 1500여개에 달하는 특가 딜과 최대 50만원 이상의 역대급 할인 혜택을 전한다.

시즌8을 맞이한 티몬투어 여행박

람회는 롯데면세점, 모두투어, 서울랜드, 소노호텔앤리조트, 야놀자, 여가어때, 여행이지, 인터파크투어, 하나투어 등 20여개 핵심 여행 파트너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박람회는 크게 ▲상품관 ▲쿠폰관 ▲이벤트관으로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건강한 다이어트 비결… 기능·품질 꼼꼼하게 체크해요”

인터뷰
푸드올로지 김 봉 관 고문

**빨간통, ‘콜레올로지 컷’
성분 기능 대대적 업그레이드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 함량 ↑
피로 개선 도움 추출물 추가해**

본격적인 일상회복에 접어들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몸 관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몸무게와 빠르게 작별하기 위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그 중에서 푸드올로지의 ‘콜레올로지 컷’은 일명 ‘빨간통 다이어트’로 유명하다. 2018년 출시 이후 편한 섭취 방법과 품질로 소비자에게 인정받으면서 인지도를 쌓아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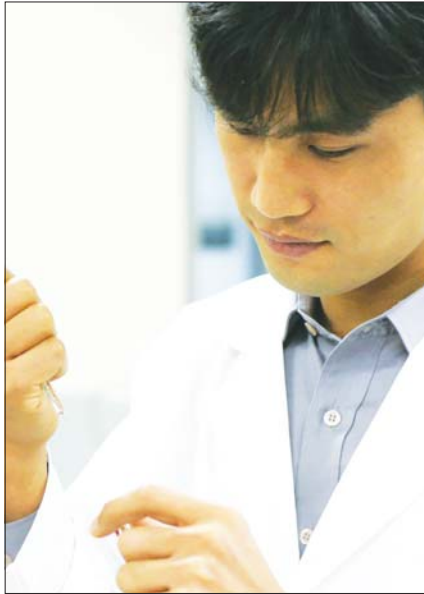
〈메트로경제〉는 푸드올로지 제품 기획 담당 김봉관 고문을 만나 베스트 제품 ‘콜레올로지 컷’의 제품력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고려대 식품공학 이학박사 과정을 밟은 김봉관 고문

은 농림수산식품 기술평가위원 및 자문 등 건강기능식품분야 경력만 18년에 달한다.

김봉관 고문은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서도 ‘콜레올로지 컷’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에 대해 ‘품질력’을 꼽았다. “지난해 폭발적인 매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해 콜레올로지 컷의 성분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기존 체지방 감소 기능성 성분 함량은 늘리고, 다이어트 시 피로감을 느낀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홍경천 추출물)을 추가하면서 입소문을 탔다”는 설명이다.

김 고문은 “자사몰이 브랜드의 시작이다보니 온라인 중심의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재작년부터 TV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오프라인 구매도 증가했다”며 “올리브영,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유통망에도 입점했고, 특히 올리브영은 입점하자마자 슬리밍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매출도 점차 안정화



김봉관 고문이 푸드올로지 제품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푸드올로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올해는 편의점까지 입점채널을 확장해서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콜레올로지 컷’은 최근 ‘신봉선 다이어트’로도 유명해졌다. 개그우먼 신봉선이 3개월동안 푸드올로지 제품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병행, 근육 손실없이 체지방으로만 11kg을 감량하면서 다이

어터들의 관심을 자아낸 것이다.

김 고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줄어들고, 체지방량은 올라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체지방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40대 이상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개그우먼의 감량기를 보여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 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푸드올로지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노바렉스, 코스맥스바이오와 MOU를 맺어 품질 전담팀을 꾸렸다. 팀원들은 수많은 샘플링 과정을 거치며 원료 선택, 성분 배합 등을 고민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도 확보하고자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고자 푸드올로지 직원들은 직접 제품을 섭취해보면서 기능과 품질 면을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김 고문은 건강한 다이어트의 비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다이어트도 결국 건강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추천하지 않는다”며 “고단백, 저지방 식단으로 식이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면 큰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드올로지는 고객들의 체계적인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사,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들이 1:1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평소 개인 생활 습관, 체질 등을 고려해 맞춤형 식단 상담은 물론, 제품 추천도 도와준다.

푸드올로지는 베스트 제품 ‘콜레올로지 컷’이 수차례 리뉴얼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재구매율을 높였던 것처럼, 다양한 제품군에서 고객 후기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올해엔 기본적인 영양제 카테고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효능 좋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7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7700원에 영양제를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구축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K바사, 차세대 ‘에볼라 백신’ 위탁생산

**MSD와 신규 생산 계약 체결
관련 개발·기술 이전 받아 진행
보건 당국 승인 받은 뒤 국제기구 공급**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MSD와 차세대 자이르 에볼라 백신 후보물질의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MSD는 국제 비영리 연구기관 힐레만 연구소와 현재 승인돼 사용 중인 자이르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의 공정 효율 및 열 안정성을 개선한 차세대 자이르 에볼라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다.

향후 해당 후보물질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규제 당국의 승인을 획득하면, 자이르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의 전세계 공급 증대와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후보물질은 SK바



MSD 사넷 차토파디아 부회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왼쪽부터)이 서울 종로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오사이언스가 관련 개발 및 기술을 이전 받아 안동 L하우스에서 생산하며, 관련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국

제거구에 공급돼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EVD)은 에볼라 바이러스(EBOV)에 감염돼 발생되어 빠르게 진행되는 심각한 출혈열 질환이다. 6종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인됐지만 지난 20년간 발병의 주 원인은 자이르 에볼라 바이러스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양한 자체 개발 백신으로 입증된 연구개발(R&D) 기술력과 최첨단 백신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각종 감염병에 대한 C(D)MO 사업을 확장해 새로운 팬데믹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중 보건 증진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LF 아떼, ‘글레이즘’ 메이크업 라인 선포

LF의 컨템포러리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가 8일 신규 제품인 ‘글레이즘’(GLAZM) 라인을 출시했다.

‘글레이즘’은 ‘광택제’를 의미하는 글레이즈(Glaze)와 프리즘(Prism)을 합친 단어로, ‘어떤 각도에서도 매끈한 글레이즘 광이 피부와 입술을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립밤 스틱’은 립밤의 촉촉한 발림성과 립스틱의 선명한 발색을 그대로 담은 제품이다. 플럼핑 효과가 있는 식물 성분을 함유해 한 번의 터치로 탄력 있고 탱탱한 입술 연출이 가능하



다.

자연스러운 광채 피부연출을 위한 ‘워터링 쿠션’도 있다. 수분 에센스 60% 배합으로 촉촉하고 맑

은 피부 텍스처 표현이 가능하다. 복숭아 빛과 바닐라 톤 2종 컬러로 피부 톤에 맞춘 생기 있는 안색 보정을 해준다.

/김서현 기자 seoh@

BBQ, 신메뉴 ‘갈리시오소’ CF 공개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BBQ)이 브랜드 모델 배우 김유정과 함께한 TV CF를 공개했다. BBQ는 마늘을 활용한 신메뉴 ‘갈리시오소’ 시리즈의 탄생을 알리고자 이번 CF를 기획했다. BBQ는 지난 3일 마늘의 감칠맛과 풍미를 더한 갈리시오소 시리즈 3종을 선보이며 마늘치킨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번 광고는 황금올리브 치킨에 마늘의

풍미를 더한 ‘바삭갈릭’, 단짠단짠 감칠맛을 자랑하는 ‘단짠갈릭’, 허니소이소스에 갈릭 후레이크를 더한 ‘착착갈릭’ 3종 중 ‘당신의 취향에 맞는 갈릭치킨을 선택하라’는 의미의 ‘What’s Your Garlic?’을 콘셉트로 한다. CF 속 김유정은 올블랙 의상으로 갈리시오소 3종 치킨과 함께 도회적인 카리스마와 섹시함, 동시에 발랄하고 상큼한 모습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신원선 기자

JW중외제약, 플랫폼 활용 ‘혁신 항암제’ 개발

엠비디와 연구협력 맞춘

JW중외제약의 연구법인 C&C신약 연구소는 정밀의료 혁신기업 엠비디와 3D 암 오가노이드 진단 플랫폼 기반의 혁신 항암제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C신약연구소는 스탯(STAT) 단백질질을 포함한 신규 타겟 항암 신약 과제에 엠비디의 3D 암 오가노이드 플랫폼인 코디알피를 적용해 다양한 종양 적응증을 탐색하고, JW중외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STAT3 표적항암제 ‘JW2286’의 적응증 확장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엠비디는 코디알피 플랫폼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항암제를 찾아주는 예측 기술과 항암제 중개연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개연구란 제약사와 기초·임상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 전략으로, 신약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임상 단계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약개발에 있어 비임상과 임상 간의 불일치를 줄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중 하나다.

C&C신약연구소는 엠비디의 3D 암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 기반의 코디알피 플랫폼을 통해 환자 맞춤형 혁신 항암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세계푸드

고당도 골드키위 생크림 케이크 출시

신세계푸드가 글로벌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와 협업해 탄생한 생크림 케이크 2종을 출시한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국내에서 제스프리의 ‘썬골드키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주목해 해당 키위를 사용한 생크림 케이크를 개발했다.

이번에 선보인 ‘골드키위 가득 생크림 케이크’는 부드러운 생크림과 시트 사이에 키위를 층층이 쌓아 올린 생크림 케이크다. 골드키위 토핑을 아낌없이 넣어 높은 당도와 진한 키위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LG생활건강, 광채 하이라이터 ‘피치 문’

LG생활건강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에서 한 톤 밝은 맑고 화사한 생기로 자연스러운 광채를 연출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 ‘피치 문’을 출시한다. 글린트의 베스트셀러 ‘듀이 문’과 ‘밀키 문’을 잇는 하이라

이터로 그날 분위기에 맞는 피부 톤과 광채감을 연출할 수 있다.

피치 문은 ‘복숭아’ 과즙 한 방울이 섞인 듯 싱그러운 햇살 무드를 연출하는 맑고 뽀얀 피치 빛 톤을 선사한다.

/이세경 기자

Louis Wain

고양이를 그린 화가
루이스 웨인展

23.6.13 — 8.31

강동아트센터 아트랑 1-3층

주최 주관

강동문화재단
Gangdong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홍보마케팅

(주)사야컴퍼니

예매문의

02-440-0500

루이스 웨인전

검색



LG유플러스-참약사,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맞손

LG유플러스가 약사 맞춤형 플랫폼 기업인 '참약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권용현 CSO(원장)와 참약사 김병주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종근당 “첨단바이오약품 개발로 글로벌 기업 도약”

창립 82주년을 맞은 종근당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종근당은 지난 4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장한 회장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종근당



DGB금융그룹, 2기 파랑새어린이합창단 발대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대구가족센터협회, 한국클래식음악교수협회와 함께 '제2기 DGB파랑새어린이합창단 발대식' 및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왼쪽 첫 번째)과 윤준혁 대구가족센터협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합창단원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 2500명에 생필품 전달

롯데복지재단은 8일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3년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 행사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롯데 플레저박스'를 전달했다.

전국 25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될 플레저박스에는 쌀, 레토르트식품, 견과류, 의약품 등 19종의 생활 필수품이 담겼다.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은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미혼모, 저소득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 품목을 전달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CC, 가정의 달 맞아 도서 360권 기부

KCC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정면 작은도서관에 500만원 상당의 도서 360권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소정면 이규인 면장, KCC 세종공장 윤석현 공장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한식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경영권을 위한 전략 ‘프랜차이즈 M&A’



이 상 현

창업 칼럼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 M&A 시장에 나와 활발한 거래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외국계 유명브랜드부터 중소형 국내 브랜드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손바뀜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M&A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첫째, 신속한 신사업 진출을 위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동력이 우수하며 자사 브랜드에 대한 독립적 유통의 헤게모니를 가질수 있는 장점에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나 신사업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사업적 시너지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M&A는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행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회사의 경우 같은 외식업 중 상품이나 유통의 호환성이나 표적고객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사업이나 브랜드라면 적극적 M&A를 시도할 수 있다.

셋째, 규모의 경제적 성장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유사 브랜드 인수는 관련한 유통규모의 양적 성장으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넷째, 사업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보통의 기업들이 인수합병의 시도는 유사한 시너지가 가능한 기업이나 업종에 대한 관심에 먼저 시

작한다 하지만 전반적 관여도가 다른 업종의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위험분산도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M&A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산업별로 경기 사이클과 서비스 상품의 회전주기의 변화로 성장동력적 한계를 겪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전혀 다른 이종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함으로써 위험적 분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신기술을 취득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기술에 대한 요구와 답대일 것이다. 외식업 관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의 차별적 제조공정이나 맛에 대한 전략적 고도화를 이룰수 있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에 대한 확보

가 용이하다. 신규사업에 대한 진입이 결정되었다고 관련한 인재를 영입하여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M&A를 통한 조직인수다.

일반적으로 IPO(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에서는 50%를 초과한 지분률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상장사의 경우는 20~30% 수준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는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주인만큼 그들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안정된 지원체계의 지속성들을 점검하는것이 기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SKT, 26년 연속 1위… 최장 기록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 최다 수상
SKB 등 패밀리사 1위 겹경사

SK텔레콤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SK텔레콤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 2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NCSI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국내 전체 산업군 통틀어 SKT가

유일하다.

또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SK ICT 패밀리사들이 각 부문 1위를 차지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1년 이후 13년 연속으로 IPTV와 초고속인터넷 2개 부문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다.

SK텔링크는 국제전화 서비스업 부문에서 최장 수상 기록을 경신하며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제주항공, LCC 부문 2년 연속 1위

2018년 이후 네번째 수상
고객 인지가치 등 고평가

제주항공이 한국생산성본부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 조사(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서 LCC 부문 2년연속 1위로 선정됐다.

8일 제주항공은 NCSI 수상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저비용항공(LCC) 부문의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네 번째 1위 수상”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중 고객 인지가치, 고객 기대수준과 고객 인지품질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객 인지가치 수준은 업계 최고수준으로 중·단거리 노선에 대한 탄력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현대車, ‘아반떼 N’ 상해 서킷 달린다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정

현대자동차가 8일 중국 상해 국제 서킷에서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정식을 열고, 고성능 경주차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 8대를 대회에 출전시킨다.

이번 출정식은 중국 고객이 N브랜드의 고성능 차량을 주행하며 상품성을 체험하는 이벤트 ‘트랙데이(Track Day)’와 연계해 마련됐다.

TCR 차이나 챔피언십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TCR 월드 투어’처럼 제조사의 직접 출전은 금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이다.

대회에는 마틴 카오, 앤디 안, 레이니 해, 장첸둥, 양시아오 웨이 등 중국 유명 프로 드라이버들이 속한 ‘현대 N’과 ‘Z. 스피드 N’ 등 총 2개 팀이 참가한다. /양성운 기자 ysw@

SK가스, 어린이 교통환경 개선 앞장

SK가스(株)가 올해도 친환경 도로환경 조성과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올해에도 ‘멈춤 캠페인’을 함께한다.

SK가스는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줄이고, 운전

자 인식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 안전을 지키고자 2021년부터 3년째 꾸준히 ‘멈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멈춤 캠페인’은 ‘운전자 멈춤, 어린이 멈춤, 미세먼지 멈춤’이라는 3가지 ‘멈춤’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인사

◆기초과학연구원(IBS) ◇본부장 △경영지원 한석훈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체육국 국제체육과장 명수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김진희 △국립중앙극장(과장직위) 조현나

◆IBK연금보험 ◇신규 임원 선임 △상무 김미숙 △상무 신선준 ◇신규 부서장 선임 △부장 배선영(퇴직연금기획부장) △부장 윤형기(IT개발부장)

◆월요신문 △편집국장 김영

◆덕성여대 △기획처장 강남희

부음

▲박점호씨 별세, 김진식(보은군 산림

복지과장)씨 모친상 = 8일 오전, 보은농협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043-543-3360

▲박간란씨 별세, 송인현(충북 괴산군수)·삼한·길현·금현·경자·지연씨모친상 = 8일 오전, 괴산성모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10일 오전. 043-833-4411

▲김길광씨 별세, 김후동(BNK경남은행 울산시청지점 지점장)씨 부친상 = 8일 오전, 울산영락원 100호, 발인 10일 오전. 052-272-1111

▲김종문씨 별세, 손태승(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씨 장인상, 김연수(영주가톨릭병원 이사장)·민수·연하씨 부친상, 장혜란·최진경씨 시부상, 김상현씨 조부상 = 7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0일 오전. 02-2258-5940

의대 블랙홀, 의대 정원 늘려야



한 용 수 역
돌직구

최근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학 후 중도 이탈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8년간 전국 27개 과학고, 영재학교 전출 및 학업중단 학생은 515명에 달한다. 중도 이탈 학생은 직전 4년(2015~2018년) 대비 최근 4년(2019~2022년) 과학고의 경우 44.5%, 영재학교는 무려 3배 증가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중도이탈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교육계는 이런 현상이 의대 진학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2018년 서울과학고와 경기과학고는 의대 진학시 장학금 회수와 추천서를 금지했고, 광주과학고와 세종과학예술평재학교 등은 추천서를 금지했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의대 제한 조치를 보다 세분화해 촘촘하게 규제했다. 의대 지원시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접수가 가능하게 했고, 상담과 진학지도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고 등으로 전출을 권고했다. 또, 정규 수업 이외 시간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추가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조치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해 학생 상당수가 학교를 중도탈락하고 의대 진학에 나섰다. 결국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풀림 현상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올해 2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나타났다.

최근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재수 이상 N수생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대를 비롯해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도 반수해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진학에 패널티를 받는 특목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진학한 뒤 곧바로 의대를 도전하라는 편법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중·고 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수험학원은 대부분 수준별로 운영되는 데, 최상위 반은 ‘의·치·한 반’으로 불린다. 의학계열이 이공계 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셈이다.

의대 내에서도 소위 인기 전공으로 풀림이 심각하다. 흉부외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갈수록 감소하며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전공에는 지원자가 몰린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라고 한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지만, 의사가 부족해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앰بول런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해결책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년 가까이 정원이 동결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의대 정원이 현재대로 유지되면 오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필요 인력 대비 2만 7232명 부족해진다. 지금도 1분 진료를 위해 한두시간 대기하는 게 기본인데, 앞으론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듯하다.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들이 특정 분야로 몰려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특목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힘든 현상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외치기에 앞서, 의대 풀림 현상부터 손봐야 한다.

/세종=hys@metroseoul.co.kr

지금 국회에는 ‘정책대결’이 필요하다



기 지 수 첵
최 영 훈
(정치경제부)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여전히 서로 혈투기 바쁘다.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 대신,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는 데 집중하는 게 일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2021년 돈 봉투 전달 대회’를 시작으로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야당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혹평하고 있다.

외교 현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혈투기 바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여야 간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며 “이제는 케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우리의 아픔을 통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물론, 여야가 서로를 혈투는 것과 별개

로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9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9일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8일 특별법 제정 촉구 차원에서 1만인 서명운동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역시 ‘파업’이라는 극단적 대결로 커지고 있으나 여야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으나 국회는 ‘상대방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 이제는 ‘정책 대결’로 국회가 국민에게 필요한 갈등 해소의 장이 됐으면 한다.

/choiyoungkr@

오늘의 운세 5월 9일 (금 3월 2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힘겨움을 이겨낸 힘으로 더 알찬 열매가 맺어진다. 48년생 소녀시절로 가고 싶다. 60년생 세상 이치를 알고 시장보다는 눈을 길러라. 72년생 이성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접도록. 84년생 직장의 밑으로 일팔성이 있어야.



37년생 인생은 긴 마라톤이니 늦지 않았다. 49년생 투자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61년생 항상 좋을 수는 없는 일. 73년생 남들도 겪는 직장인의 고민. 85년생 세상을 감탄시키는 글재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8년생 과거에 배운 외국어로 뒤늦게 인정 실력은 인생에서 오래 머무는 보물. 50년생 상처를 입었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 62년생 주말농장을 계획. 74년생 시련 없는 인생은 없을 것. 86년생 내 그릇을 알게 되니 행복하다.



39년생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니 근본을 튼튼히. 51년생 소소한 일에 너무 아파하지 말자. 63년생 어느 시대나 거짓정보가 있다. 75년생 양심과 염치를 알아보자. 87년생 풍수의 관점에서 집안청소를 하루 일과로.



40년생 능력을 내세워 하세 부리지 않도록. 52년생 힘들게 일과놓은 결과가 인정된다. 64년생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상사가 내 옆에. 76년생 실력포함 성실함은 큰 힘이다. 88년생 강남에서든 개천에서든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41년생 내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상관없으니. 53년생 자연인이 되고픈데. 65년생 옹크리고 있는 하루이니 새벽부터 종일 운전주의를. 77년생 편한 것만 찾으려 하지 않도록. 89년생 집안의 안녕을 기원해보는 기도를 시작.



42년생 화무십일홍이니 영원히 가는 재물도 없다. 54년생 비행기를 타는 것도 지긋지긋. 66년생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라고 하니 돈을 사랑할 수밖에. 78년생 기다리는 것도 체세의 하나. 90년생 조상님의 가피를 마음에 지녀보자.



43년생 시련이 있으면서 삶은 원숙해진다. 55년생 입바를 말을 한다고 의인은 아닌 것. 67년생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도 다가온다. 79년생 상식선에서 정해진 규칙을 벗어 나지 않도록. 91년생 언젠가 내 지위에서 오르는 날이 있을 것.



44년생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56년생 부동산이나 건축업으로 운이 띄는 길림길에서다. 68년생 보양식을 먹고 행복한 날. 80년생 훗날의 이상에 관심보다는 직장에 충실. 92년생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통찰력은 마음을 닦는 것.



45년생 이동과 변동으로 재산형성. 57년생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주더라도 다 읽지를 못한다. 69년생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원하는데 뜻을 이룸. 81년생 오늘따라 맑은 하늘이 반갑다. 93년생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46년생 나이가 들면 일이 더디게 마련이다. 58년생 통찰력이 대단하니 판단도 현명. 70년생 대추 한 알도 익으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82년생 운을 얻으니 해외파견도 승산 있다. 94년생 늦지 않았으니 뭐든 찾아 기술을 배워보자.



47년생 인생의 틀이 다시 한 번 움직이니 뒤늦은 운이 온다. 59년생 부동산의 귀재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71년생 천둥과 번개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온다. 83년생 누구를 탓하는 습관을 버려라. 95년생 어느 인생이나 굴곡은 만만다.



김상회의四季 아시아 신흥국 투자

중국의 성장률이 지지부진한 최근에는 새롭게 두 나라가 뜨고 있다.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는 베트남과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다. 두 나라의 특징은 자본시장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점이다. 베트남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5년 사이에 14조원에서 270조원으로 급증했다. 인도네시아는 129조원에서 756조원 규모로 커졌다. 여기에 경제성장률은 베트남은 올해 7.5% 성장이 예상되고 인도네시아는 5.4%로 전망한다.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고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단연 눈독을 들일만 한 시장이다. 해외에서 두 나라로 투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더해 자국민들도 투자 열풍이 뜨겁다. 한국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지 증시 직접 투자가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이 ETF에 큰 돈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대표종목으로 구성된 ETF를 순매수하는 개인투자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선진국보다 새로운 기운으로 융틀임하는 신흥국의 투자 매력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고 인구가 늘면서 경제에 활기가 가득하다. 젊은 소비층이 많은데다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패턴이 달라지는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디지털시장이 커지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려면 지금이 좋은 시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큰 수익률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판단은 다르겠지만 성장성을 본다면 주목해야 할 시장은 틀림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4		7			
		7			9	4
	6		1			8
	7				3	8
2		5				7
	5				8	6
8		3	6		5	
				1		4

6					4	3
3		7		6	1	
	6					2
		3			7	
	9					4
		2		8		7
			7	6		
9	6					4

정답

4	7	8	1	6	9	9	2	6
2	6	9	7	4	9	6	1	8
6	9	1	8	2	6	7	9	4
7	4	6	9	1	8	9	6	2
1	2	9	4	9	6	8	6	7
8	9	6	2	6	7	1	4	9
6	8	4	6	7	1	2	9	9
9	6	7	6	9	2	4	8	1
9	1	2	9	8	4	6	7	6

7	1	8	6	2	9	9	4	6
9	6	2	9	6	4	7	8	1
4	9	6	1	8	7	2	6	9
1	7	6	2	4	9	9	6	8
9	8	4	6	9	1	6	2	7
6	2	9	7	6	8	1	9	4
2	9	1	8	9	6	4	7	6
8	4	9	9	7	6	1	2	9
6	7	4	1	2	8	9	9	

과·초·고의 월드파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現 고2, 입시 요강 필독... 논술 부활·수능 최저 강화된다

〈고려대〉

〈연세대·한양대〉

2025학년도 국내 주요 대학입시 변화
자연계열, 선택과목 지원 제한 줄어
동일 계열 지원 시엔 가산점 추가
연세대, 논술·교과전형 면접 폐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려대가 7년만에 논술전형을 부활하고 연세대와 한양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내 주요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변화한다. 특히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정시에서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주요 대학이 속속 늘지만, 동일 계열 과목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추가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차지원이 활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고려대, 수시 논술전형 7년 만에 부활**
각 대학들이 최근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고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입장을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뉴시스

대가 논술 전형을 7년 만에 다시 도입하고 전체 선발 인원의 7.9%인 334명을 55개 모집단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반면, 성균관대(2023학년도), 중앙대

(2024학년도)가 과학논술을 폐지한데 이어 연세대도 논술전형에서 과학논술을 없앴다. 2025학년도 과학논술을 치르는 대학은 경희대(의약학계열), 서울여대, 아주대(의학과) 등 소수 대학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강화하는 추세다. 고려대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 모집단위는 4개 영역 등급 합 8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이다. 단, 경영대학은 4개 영역 등급 합 5이내로 기준이 매우 높다.

연세대도 2025학년도 고려대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은 유사한 수준, 자연계열은 다소 낮은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한다.

◆ **선택과목 따른 지원 제한 폐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자연계열 지원자에게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이 늘어난다. 고려

대 정시에서는 수학영역 선택과목에 따른 지원 제한이 없어진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도 과학탐구 응시 시 자연계열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이는 다른 대학들의 탐구 영역 제한 해제와는 대조적이다.

성균관대와 연세대도 정시에서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한다. 단,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 과학탐구 과목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정시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연세대도 인문사회계열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와 자연계열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에게는 각 탐구과목에 3%의 가산점을 추가한다.

이화여대는 수시와 정시 모두 선택과목 제한이 없어지지만, 정시에서 자연계열 지원 시 과학탐구에 1과목 당 6%의 가산점이 부여돼 사회탐구 선택자의 교차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

서강대는 2024학년도부터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제한이 없다. 정시 가산점에서 작은 변화가 있는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선택시 부여하던 0.5점의 가산점을 최대 1과목에만 적용한다.

◆ **연세대, ‘교과전형’ 면접 폐지하고 이대는 단계별 진행**

연세대 학생부교과(추천형)은 면접을 폐지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방식은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변경된다.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은 2025학년도부터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학생부교과 성적 상위 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한 후, 해당 학생만 대상으로 면접 고사를 치른다. 단, 2023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5.51대 1로 지원자 중 대다수가 면접에 참여할 수도 있다. .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9호선 新열차 투입 앞당긴다

올 연말 내 3~4편성 우선 투입
2·4·7호선도 국비 확보 후 추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9호선 급행열차를 탑승해 혼잡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열차 투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출근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여의도역에서 동작역까지 이동하며 혼잡도를 살폈다. 그는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부터 운행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밀려드는 승객을 감당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먼저 시는 지하철 9호선 신규 열차 투입 시기를 내년 초에서 올 연말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3~4편성이 우선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올 4월28일에는 8편성 중 초도편성 차량이 개호 차량기지에 입고 완료돼 시운전 등 운행 전 마지막 준비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추가 입고 예정 차량을 포함해 올 연말 내 3~4편성 우선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 4, 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은 국비를 확보해 지하철 증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2호선은 2편성, 4호선은 4편성, 7호선은 3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전동차가 투입되기 전까지는 노후 전동차 중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전동차를 활용해 혼잡도를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내구연한(25년)이 도래한 전동차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5년간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내년까지 5호선 1편성, 7호선 3편성, 8호선 1편성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자선 문화 확산 등 공존 정책 펴는 세계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자선 문화 확산,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제공, 이륜차·자전거 대기공간 설치 등의 공존 정책을 펼치고 있다.

8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물가가 치솟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라마단 기간에 ‘파용 라흐마’(자비의 우선) 정책을 추진했다. 파용 라흐마 프로젝트는 생필품, 외식비를 지원하는 단기 사업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달 중 정책 효과성을 분석해 파용 라흐마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델리 NCT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젊은 세대와의 동행에 팔을 붙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NGO(비영리민간단체) ‘산가뜨’와 협력해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산가뜨는 사례별로 전문 담당자를 배정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시 해당 아동·청소년을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임무를 맡는다.

말레이시아 페낭주는 이륜차·자전거와의 공존에 힘쓰고 있다. 페낭주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는 이륜차 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륜차·자전거 대기 공간인 ‘바이크 박스’를 설치했다.

바이크 박스는 바다이 주황색으로 칠해진 3m 너비의 사각형 공간으로, 교차로 지점에서 약 4.5m 후방에 설치된다. 올 2월 기준 페낭주 내 53개 교차로에 바이크 박스가 조성됐다. /김현정 기자

‘고양국제꽃박람회’서 비즈니스 상담 전개

국내·외 화훼산업 종사자 주를 이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전세계적으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화두가 떠오르고 우리 삶과 환경을 회복하고 재건하고자 한다. 4년 만에 개최되는 2023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는 변화된 세상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 화훼산업 내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3고양국제꽃박람회의 화훼산업관에 마련된 화훼비즈니스센터에서는 행사 참가자 및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산업 종사자 초청을 통해 △현장 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담은 꽃박람회 국내·외 참가자 및 상담을 위해 초청된 업체(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상담은 해외 관련 종사자와 국내 업



화훼비즈니스센터에서의 진행 중인 현장상담.

체의 상담이 주를 이루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화훼산업 내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업체 간의 B2B 비즈니스 매칭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외 시장 개척의 국가로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르완다, 필리핀 등의 업체 또는 기관에서 한국의 업체들과 비즈니스 상담에 참여하여 진행 중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어린이집 300곳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

장애아통합·연장반 운영 등 대상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300곳을 선정해 ‘서울형 전임교사’를 확대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시는 작년 3월부터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 사

업을 추진했다.

시는 시범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의 총 근무시간은 8.17시간에 8.12시간으로 줄었고, 양육자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91.14점에서 95.06점으로 상승했다.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대상은 영아보육, 장애아통합, 연장반 운영, 정원 50인 이하 어린이집 등이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9일 (火)
음력 : 3월 20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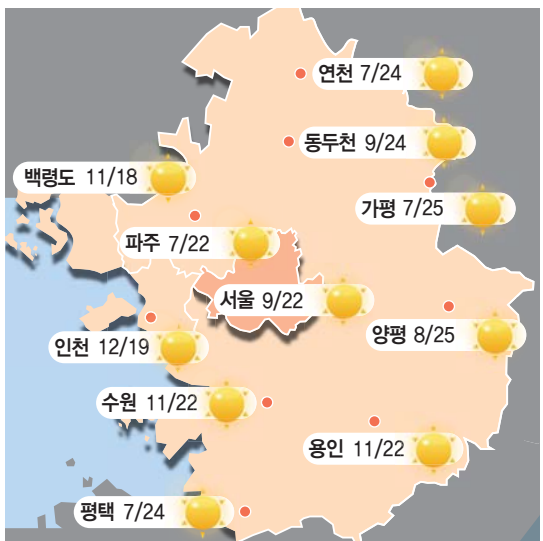
11~2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텍사스 총격 희생자에 한국계 3명 포함돼 /사진 뉴시스
▲ 中매체, 한일 정상회담 ‘지역 블록대결 가속’ 폄하

▲ 美재무장관, 디폴트 거둬들 경고
▲ 러, 자포리자 지역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피령’



▲ 아시아계 미국인 절반, “美서 안전하지 않다”
▲ 중국 기술기업, 자체 반도체로 AI 개발 추진 /사진 뉴시스



진화하는 보험사기
처벌법은 제자리
실효성 있는 방안 주문
08

metro®

Life

겪일 줄 모르는
외식물가
소비자 부담 커져
L1



청정해안 만들고, 폐기물 재활용... 지구 지키는 ESG로 飛上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제주항공

코로나19의 그늘을 벗어난 항공사들이 일제히 도약 중인 가운데 제주항공이 ESG 경영 내재화에 열을 올리며 '비상'을 준비 중이다.

◆기단 경쟁력 갖추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항공 산업은 대표적인 기간사업 중 하나로 '하늘 길'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탈탄소' 분위기 속에 항공사들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해 있기도 하다.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많은 항공기(36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기단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항공사다. 제주항공은 항공업계가 처한 탄소 저감 숙제를 신기종 도입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신기종 도입은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힘을 더할 전망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도 올해 열린 제18기 제주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기종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는 "올해 신기종(B737-8) 도입 등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종보다 월등히 개선되는 연료 효율과 운항 거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주항공의 향후 기단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올해 B737-8 신규 항공기 4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19년 45대에서 2022년 37대로 줄어든 항공기는 올해 41대로 늘어난다.

B737-8기종은 신형 엔진과 연료 효율에 최적화된 윙렛(winglet)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기존 운용 중인 동급 기종인 B737-800에 대비해 연료 소모와 탄소 배출을 약 14% 저감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기종의 연료 효율성은 탈탄소 효과는 물론 LCC들이 경영 핵심으로 꼽는 고효율·저비용 사업구조를 더 탄탄히 만들 것으로 보인다.

◆생태정화부터 의료봉사까지...영역 가리지 않는 봉사

이 밖에도 제주항공은 ESG 지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의료봉사 ▲연탄봉사 ▲생태정화봉사 ▲교육봉사 ▲헌혈봉사 등 다양한 사회봉사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전사적으로 '적극 봉사'를 실천하는 중이다.

제주항공은 한국경영인증권(KMR)이 선정하는 '그린스타(GREEN-STAR)' 인증에 5년 연속 저비용항공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린스타 인증은 한국경영인증권(KMR)이 소비자가 직접 친환경상품 인식도 등을 평가하는 소비자 참여 및 리서치 등을 거쳐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선정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다.

제주항공 조종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자발적으로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하며 연료효율 개선을 통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생태정화봉사에 나선 제주항공의 '에코머'

연료효율 높은 신기종 도입, 탄소 저감 기여
의료, 생태정화, 교육, 헌혈 등 봉사 다각화
제주해안 환경정화, 제주보육원 교육 지원

폐기처분 유니폼 재활용, '리프레시 백' 판매
구멍조끼 폐자재 재활용한 여행 굿즈 출시도
장애인 일자리 제공하는 '모두락' 6년째 경영

제주항공은 '제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을 위한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도 지속하고 있다.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속적으로 제주 해안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소속의 특화팀 '봉우리'는 제주보육원과 함께 제주보육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육 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일상 속의 ESG 실천

제주항공은 ESG 경영을 통해 일상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굿즈 제작에서부터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일상의 변화를 꾀하는 ESG 활동을 시도 중이다.

제주항공은 국내 최초로 폐기처분 유니폼을 재활용한 상품인 '리프레시 백' 시리즈를 판매한 항공사이기도 하다. 리프레시 백은 찢김, 이염, 오염 등으로 폐기처분 될 유니폼 200여벌을 재활용해 제작된 물품이다. 이런 재활용 제품은 기내 폐자재인 구멍조끼 부위에 따라 모든 제품의 디자인과 패턴이 달라 나만의 소장품으로 간직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올해도 제주항공의 업사이클링 굿즈 판매는 지속된다. 제주항공은 현수막, 이너튜브 등 일상 속에서 쉽게 버려지



제주항공이 '누각(Nukak)'과 공동으로 만든 기획상품.

/제주항공

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가방과 액세서리를 제작 판매하는 글로벌 업사이클링 브랜드 '누각(Nukak)'과 공동으로 이번 기획상품을 제작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기내에서 사용한 구멍조끼 폐자재를 재활용해 제작한 굿즈(Goods·기획상품)를 새롭게 출시했다. ▲여권 지갑(4만5000원) ▲여행용 가방(5만5000원) ▲미니 파우치(3만3000원) 등 3종이다.

또한 제주항공은 2017년 4월18일 항공업계 최초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두락'을 올해 6년째 경영하며 사회적 책임 기업의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모두락'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카페와 네일아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족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하는 의무고용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180만여 개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1.49%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은 4만 8600개로 전체의 2.7%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모두락은 지난해 평균 3.1%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참여율은 임직원들의 ESG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실시한 경영 인식조사에 따르면 제주항공 임직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중요성과 업무 연관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80%가 ESG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91%가 ESG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동호회 공공체육시설 독점...문체부, 칼 빼든다
▲손흥민에 또 인종차별...양구단, 강경 대응
/사진 뉴시스

▲오체투지 나선 스님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막아야
▲문화재청, '수라간 시식공감' 행사 개최



▲23일부터 '자수가사' 보존처리 현장 공개
▲청와대, 대통령역사·K-컬처 공간으로 변신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AI to [반도체 (SAPEON)]

사람이 차 조심하는 세상 말고
차가 알아서 사람을 조심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더 안전한 AI 시대를 앞당기고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진화를 위한 SKT AI 반도체(사피온)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Everywhere
SK telecom